

## ‘국민 大覺醒 운동’을 펼치자



온 국민이 울었다

봄비가 뿌리는 곳은 날씨에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 27일 경기 안산시 올림피아기념관의 임시분향소를 찾은 조문객 행렬은 이웃 고잔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이어졌다. (동아일보 제공)

## 세월호 대참사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痛哭을 어찌해야 하는가.

여객선 한척의 침몰이 국가와 사회의 침몰과 붕괴로 몰아가는 공포가 아닌가. 어찌 나라 전체가 곤두박질이란 말인가. 온 세계의 驚異를 받아온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여기란 말인가. 이 소용돌이에서 탈출구를 어찌 찾아야 하는가.

단연코 우리 모두가 크게 깨어나 정신을 차려야 할 뿐이다. 그래서 대한언론인회가 ‘國民 大覺醒 運動’을提唱한다. 島山 안창호선생의 ‘民族改造論’을 다시 꺼내 들어보자. 민족의 힘이 모자라 亡國의 위기에서 부르짖었던 ‘민족개조론’이었다면 선진 대한민국의 구조부실에서 빚어진 위기를 ‘국민 대각성운동’으로 바로 세워나가자는 것이다.

2014년 4월16일 이후, 오늘까지 기도와 기대속에도 안타까움과 불안과 공포와 피눈물로 주체할 수 없는 시간, 시간이었다.

〈눈 뜨고 아이들 잃는 나라/ 우왕좌왕 3류정부/ 대책없는 대책본부/ 외신들, 세월호의 악마선장/ 성수대교-삼풍백화점-경주리조트에 매뉴얼만 서랍속서 뒹굴어/ 이럴바엔 안행부서 안전 떼어내야/ 관료사회의 특권익식 혁파해야/ 대한민국 정부에는 대통령 한사람뿐인가〉 이것이 사고처리 기간에 가슴을 후벼낸 신문기사의 제목들이다. 신문사설들도 〈아리고도 선진국 되겠다는 말 나오나〉 〈승객 팽개치고 먼저 빠져나온 선장, 선원들〉 〈세월호 쇼크 대한민국 다른 곳은 안전

### 우리의 주장

한가〉 〈4.16을 안전 國恥日로 삼아 국가시스템 다시 세워라〉라고 주장했다.

이제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국민 대각성운동’밖에 뭐가 있을 수 있겠는가. 島山선생이 ‘민족개조론’에서 인간을 주축으로 교육과 종교, 농업, 상업, 토목과 강과 산까지도 바뀌어야한다고 했듯이 오늘의 우리 위기는 총체적인 국가와 국민의 대오각성만이 탈출구이고 생존의 길 아니겠는가. 島山은 개조는 개혁이라고 했고 그것은 국민 각자의 覺醒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우리의 역대정부도 정권의 위기때마다 개조방안을 내세웠지만 말장난으로 끝나고 말았었다. 믿음의 결여, 정직하지 못한 꼼수, 실제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상황에서도 다시 안전시스템과 위기관리체계의 개선·개혁, 심지어 내각총사퇴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나팔소리만 요란치 않아야 할 것이다.

이제 어느 한구석만의 잘 잘못을 따질 수 있겠는가. 원인을 따져 늘어놓자면 한이 없겠다. 이 판국에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니겠는가. 일단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기는 했을 것 아닌가. 우리의 정치, 정부와 관리들이 대오각성만 한다면 사후 정리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분명한 처리와 대처능력을 살려 塞翁之馬의 결과를 온 국민의 시선으로 강력히 독려해야겠다. ‘국민

대각성운동’으로 힘을 주자.

우리 아이들이 아직 감감한 바닷속에 있는데 몸값의 돈타령을 떠들어대는 등의 수치는 접자. 살아 돌아온 아이들도 생각할 때다.

과렴치, 몰염치의 악마들이 세상을 뒤틀어놓았지만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마지막에...”라며 입었던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벗어주며 희생된 박지영양과 선생님들의 천사같은 모습이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닌가. 어둠의 저쪽에서 비쳐오는 동방의 등불을 다시 보듬으며 힘주어 일어서자. 遵法정신, 利他心을 확고히 배양한 바탕위에 ‘국민 대각성운동’을 펼치자. 이제 우리 모두 자성의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다시는 이땅에 통곡이 없도록 하자.

이 푸르른 5월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아이들이  
더 푸르를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거라  
이 무능한 어른들을 용서하여다오

김은구 (대한언론인회회장)

세월호침몰 희생자 분향소 조문  
대한언론인회 간부진 일동

대한언론인회 김은구회장을 비롯한 간부진은 4월 29일 오후3시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침몰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 속보경쟁 매달려 검증안된 뉴스 쏟아내

## 세월호 침몰 대참사 보도의 문제점

### 참석자

**사회 신동호**(전 조선일보 사회부장·편집국장·스포츠조선 사장)  
**박용배**(전 한국일보 사회부장·통일문제 연구소장)  
**박우정**(전 MBC 사회부장·방송기자클럽 회장)  
**최신호**(전 서울신문 사회부장·심의위원 실장)  
**한중광**(전 KBS 사회부장·인터넷 사장)  
**정리 호천웅**(전 KBS 사회부장·청주 총국장)

때: 2014년 4월 23일    곳: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엠바고룸



긴급 좌담회를 가진 신문·방송 사회부장출신 본회 회우들.

**사회(신동호):** 무어라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불행을 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사회부장 경력을 가진 우리들을 모아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는 뜻은 현역들이 애써왔고 계속 수고하겠지만 지난 일주일동안에 벌써 언론재난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있는데 이런것은 보도되고 있지않습니다. 오늘의 좌담은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이 스스로 반성하고 시정해 나가는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되는 말씀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와 관련된 원인과 대책, 수사나 마무리는 정부와 관계기관, 수사당국이 할 일이니 맡기기로하고 오늘은 언론과 보도문제만 다루도록 했으면합니다.

**박용배:** 지난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된 이후 진행된 사고대책본부나 언론보도 상황을 지켜보면 한마디로 “붕괴”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무너지고 위기관리가 행방 불명된 데서 온 결과였습니다. 보도도 기준이나 매뉴얼이 상실된 상황이었습니다.

1967년 여수 앞바다에서 여객선 한일호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고 93년에도 서해훼리호가 침몰돼서 292명이 희생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이런 해난 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던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허물의 후과가 이번 세월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운회사인 청해진의 백화점식 부패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사회체제의 침몰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 신문과 방송의 보도를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에 정부내의 대책본부가 10개라고했는데 언론계는 100개도 넘는것같았고 1천명 이상의 기자및 보조요원이 진도근변에 몰렸으니 혼란은 당연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TV의 장시간 새소식없는 뉴스는 정말 시청하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방송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방송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박우정:** 사고현장이 바다인데다 항구 병원 체육관 수사본부 안산시등 고정된 취재포인트가 많다보니 방송 신문등 모든 매체가 취재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다 하겠습니까. 특히 지상과 3사의 경우 휴대중계차로 불리는 LTE, 포터블 SNG등 첨단장비에 헬기까지 상주시키고 부근섬에 뉴스룸을 설치하는등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도 현장 보도와 선박과 잠수 구조관련 전문가들을 빈번히 등장시켜 초조하고 답답해하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등 채널특성을 살리면서 취재경쟁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방송사의 특보체제는 노력과 고생은 많이하고있지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하긴 신문도 비슷했어요. 구조작업

을 격려하고 가족들을 위로해서 마음을 다잡게 하기 보다는 원망하고 더욱 비판에 빠지게 하는 역기능이었다고 봅니다. 현장 취재기자들이 가족들을 오히려 더 슬프게 하고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태기 보다는 구조작업을 더 어렵게 한 측면은 없었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독자와 시청자의 환심을 사려는 포폴리즘 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중광:** 최초로 사고사실을 보도한것은 조난신호가 해경에 접수된 다음 약 30분후인 9시31분, SMS문자통신이었습니다. 이어서 방송들이 자막으로 특보를 보도하고 이때부터 속보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탑승자 숫자가 널뛰기를 시작하고 ‘학생들 전원 구조’에 이르러서는 결과적으로 방송들이 불신을 넘어서 증오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들은 대부분 조간이어서 방송을 모니터하며 비교적 여유있게 취재전선에 가세했습니다만 석간 신문은 방송의 대오보를 편집했다가 사과를 하기도했었지요. 결국 분초를 다투는 방송들이 시청자들에게 괴로움을 주며 재난보도를 연속극처럼 처리했다는 비난과 함께

피해자 가족들에게 냉대를 받기에 이르렀지요. ‘학생 전원 구조’에서 시작된 오보는 한 방송에서 ‘가짜 잠수부 흉모’ 인터뷰, 구조된 6살 어린이 얼굴 방영, 보험료 3억5천만원 운운, 구조된 학생에게 “친구 죽음을 아느냐”는 부적절한 질문등 재난방송 취재의 기본을 잃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진전이 없는 내용을 시간마다 반복함으로써 괴로움을 더했으며 필요이상의 스케치기사는 가족들의 언론인 출입금지 ‘금줄’까지 등장시켰습니다. 대형사고, 사건 취재경험이 적은 사건기자들의 준비없는 현장 투입과 역시 경험이 적은 데스크의 한계때문입니다.

**최신호:** 그렇습니다. 대형사고 사건 때마다 “예고 된 인재(人災)였다”를 되풀이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 상식과 원칙이 내팽개쳐졌고 사소한 규정이나 법규도 제대로 지키지않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공권력은 행방불명 상태, 곳곳에 널려 있는 탈법, 불법이 마구 굴러다니다가 대형 참사를 빚어온 것이지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도문제를 살펴보면 70년도의 남영호침몰사건과 20여년전 서해 훼리호 사고때보다 개선된것

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속보성에 치중하다보니 정확성과 신뢰도가 많이 실추됐어요. 오보도 있었구요.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을 배려한 신중한 보도가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매체수가 급격하게 많아진것도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지나친 경쟁 탓이지요. ‘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라는 보도는 잠시나마 국민을 감동케했었지요. 그러나 뒷맛은 쓰디쓰고 허탈했습니다. 앞으로 한발 늦더라도 ‘가장 정확하고 제일 믿을수있는 신문 방송’이라는 명예로운 별칭을 얻게될 매체는 없을가를 생각합니다. 발행부수나 시청율하락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를 감수하면서도 끝내 ‘국민이 가장 믿고 사랑하는 매체’라는 타이틀에 과감히 도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사회:**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사생활 문제를 들어 기자들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잖습니까? 이런 사태를 막기위해서 취재기자수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올림픽때처럼 협동, 전문성을 살려 최소화, 정예화할수있는 방법은 없겠나싶습니다. 언론

사들이 경쟁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협조하고 자제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중광:** 정통 매체 뿐만 아니라 1인 인터넷방송을 비롯해 만인 기자 미디어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우정:** 올림픽경기나 월드컵같은 축제와는 달리 사건, 사고의 경우 합동취재나 취재공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참사처럼 상상을 절하는 대형사고에 산재한 취재장소, 확인이 되지않는 SNS를 외면할수없는 상황에서 방송시간이 늘어나니 과장된 내용도 걸러지지않고 그대로 전파를 타게 됩니다,

**사회:** 24시간 TV화면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방송한 내용이 되풀이됐어요. 걸러지지않고. 언론의 사명은 정확한 내용의 전달인데말입니다. 그상황에서 왜 방송시간을 그렇게했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지면을 통해야만

3면으로 이어집니다.

# 과잉취재에 선정적 접근 ‘언론재앙’ 비판

## 사회부장 출신 본회 회우 긴급좌담



신동호 회우



박용배 회우



박우정 회우



최신호 회우



한중광 회우



호천웅 회우

## 새소식 없이 24시간 TV방영 ... 피로감·불신 키워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유언비어·낭설등 걸러내야

2면에서 이어집니다.

정확, 공정보도가 이루어지고 우수 언론기관이 되는것인지. 사주와 편성, 보도, 편집국장의 판단이 옳았느냐는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네, 24시간 방송에서 보인 허점들은 앞으로 연구해서 보다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 일입니다.

사고 당일인 16일의 화면을 17일과 18일에도 계속 보여줬는데 사실 새로운 뉴스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습니.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 소리 또 해야하는 상황이었으니 같은 화면에 목소리만 클 수 밖에요. 구조 소식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에게는 짜증이 누적되고 다시 불안감이 조성되는 형국이지요. 더구나 지상파에 종편, 그리고 뉴스 채널까지 경쟁하듯 했으니 시청자들의 정서에도 염려스러운 문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가족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트라우마까지도 염려되지요.

**한중광:** 취재 경험이 부족한 기자들이 대형 사고를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사건 사고 취재 경험이 많은 선배기자들이 자원봉사로 취재나 제작에 동참하는 방안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우정:** 솔직히 언론의 과잉, 선정, 오보문제는 이젠 일상의 문제인데 큰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비례해 큰소리가 날뿐입니다.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참사가 발생하자 방통위와 기자회견이 선정보도 자체, 유가족배려등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만 그런것이 다 기자들에겐 상식입니다. 취재윤리의 식의 결여가 문제입니다. 아는것을 지키도록하고 어길 경우 상당한 제재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기자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언론사와 대한언론인회,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관훈클럽등 언론단체가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정부까지 함께해서 반드시 지켜지는 재난보도 윤리준칙(가칭)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언론사나 기자들로부터 외면받지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글프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용배:** 우리들이 현장을 뛰고 데스크를 지키던 그 시절은 그야말로 후진

성 사건과 사고가 많았고 취재방식이나 보도 상황도 자랑할 만한 것은 못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기자로서의 기본은 철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재경쟁을 하다보면 흥분하기도 하고 잘못을 빚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취재 장비도 취재환경도 초현대적인 요즘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보면 역시 사람에게 문제가 있구나해서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 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술함이 드러났습니만, 취재보도의 기본과 상식 그리고 매뉴얼이 지켜져야만 좋은 신문과 방송의 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 주어진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채우느라 함부로 말하거나 논평을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절감한 또 한번의 사례라 할수있겠습니다. 유언비어나 낭설 또는 의혹을 보도하는 실수는 큰 사건, 사고일수록 잦게되는데 이럴때일수록 냉정하고 신중해야지요.

**최신호:** 급하다 보니 적지 않은 오보와 다듬어지지 못한 기사도 많았습니다. 언론의 영원한 숙제이기도하지만 평상시는물론 재난을 당해서도 냉정하

고 차분하게 사실만을 보도하는 캠페인이라도 벌이자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속보의 중요성보다는 정확함의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우정:** 참사뿐만 아니라 상황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거나 관심을 두어야하는 이슈일 경우에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취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전담부서의 마련 등 효과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중광:**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아이티(IT) 강국입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재난구조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선박과 육상관제소, 항공기등이 함께 사용하는 국제조난주파수 156.8MHz등을 활용해서 입체적인 구조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현장에서는 해경 해군 대책본부가 각기 다른 무선통신망을 사용해서 분초를 다투는 해난구조에 차질을 빚은것입니다.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논의가 시작된 국가재난통신망이 낮잠을 자고있습니다. 또한 큰사고나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실무팀에게 뒷선에서 상황보고를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상부에 보고하느라 현장대응이 늦어지고 일부상황을 숨기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보도진들이 확인되지않은 첩보에까지 영키면 이번처럼 구조자 숫자등의 오보가 발생합니다.

**사회:** 언제나 당국의 발표는 그대로 보도하는데 이번에도 항공기, 구조선박 등 구조장비와 잠수부 인원 숫자등이 부풀리기, 합산 연회수등등을 따지지않고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초기의 ‘전원구조’ 등 오류의 과정은 꼼꼼이 따져서 탐사보도하듯했어야 합니다. 또 잠수부의 활동이 미진하다해서 가족들의 원망이 많았는데도 잠수부의 동정과 애로사항을 취재 보도하는데는 미진했다는것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최신호:** 대책본부와 컨트롤 타워가 너무 많았고 보도체계도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때문인지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된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사고처리의 경우 미국은 9·11테러 사건 때 뉴욕시 소방본부장이 총책임을 지고 일관된 그리고 효율적인 수습에 나섰다고 합니다. 상급기관은 합리적인 결정과 지원을 맡았었습니다. 이런 확고한 체제의 처리에서는 보도도 바람직스러울 수 있겠지요.

**박용배:** 우리는 일이 터진 그때뿐 바로 잊어버리는 망각과 오만을 되풀이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방교육과 초기대응이 미흡했고 그것은 모두 기본이 안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회(신동호):**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면 애통하기 한이 없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우리들 자신부터 반성하고 각오를 다집시다. 

# 기초의회 폐지 - 주민 소환제 활성화

## 6·4 지방선거와 국민의 자세

對



이 덕 주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전 코리아헤럴드 뉴욕지사장  
·전 KBS 사업단사장

사회 : 문명호 본회 주필  
정리 :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사진 : 이철영 본보 편집위원

앞으로 일반 시·군·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폐지하는 한편 폐지 전이라도 현재 기초의원에 대해 현행법 규정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2012년 여야의 대선공약으로 나왔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폐지는 전형적 정치포퓰리즘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이라도 공천에 따른 폐단을 제거하는 근본대안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지방정치가 중앙정치 예측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토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견제책으로 주민소환제의 활성화, 지자체 파산제와 국민감사청구권을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4월18일 프레스센터에서 오는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대담을 가졌다. 이날 대담도 원로언론인 중에서 이덕주 전 KBS 사업단사장과 현역인 이용식 문화일보 논설실장을 초청해 이루어졌다. 이덕주 전 사장은 일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접선거를 폐지해선 안 되지만 기초의회 의원선거는 폐지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 현직 언론인 단체인 관훈클럽 총무이기도 한 이용식 논설실장은 물론 이 전 사장도 기초 지자체에 대한 정당 무공천은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운 공약이었다는데 입을 모았다. 공천에 따른 폐단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명분으로 정치권 스스로 공약했지만 또 다른 폐단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공천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강력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두 전 현직 언론인은 또한 지난 1995년 실시 이후 나타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본 문제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측돼 있고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공약이나 후보자를 보고 투표하기 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내년에 지자체 실시 2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자체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장단기 종합대책을 여야 정치권에서 마련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국회의원 손아귀서 돌아나

**문명호:** 오늘 대담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문제부터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공천 폐지 취지는 공천비리 때문입니다.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단체장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적어도 7억 원을 특별당비로 내야하고 기초의원원의 경우 3억 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7당6락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던 게 현실입니다. 2006년 5·3 지방선거 때는 5억 원이었는데 4년이 지나면서 2억원이 추가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72.9%, 지방의원원의 88.2%가 정당공천을 부패유발의 원인으로 꼽았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나마 당선돼 봐야 국회의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은 지자체의 공공사업 발주나 행정권에 개입하고 낙찰에 관여하는 등 폐해가 심해 지자체 시기상조론이 나오고 폐지론까지 제기돼 공천에 따른 비리문제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용식:** 그래서 2012년 대선 때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폐지토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라면 폐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 하는게 옳았다는 점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공천을 하지 않으면 지자

체 문제점이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측 되는걸 막아야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정치가 활성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정치권에서 내세운 원론적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공천 하면 더 근본적 문제가 생깁니다. 흔히 토호라 불리는 돈 있는 지방 유지들이 발호를 합니다.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자체장이 되고 지방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가 훼손되는 근본적 문제에 봉착합니다. 공천을 폐지하면 이번에 드러났듯이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과 당원들이 대거 탈당해야 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우루루 입당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혼란이 뒤따릅니다. 공천을 굳이 폐지하려면 지방정치인들에게 원천적으로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당정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지방정치나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덕주:** 기초단체장을 뽑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구청장후보들을 유권자들은 잘 모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는 서류만 보고서는 유권자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당에서 기초단체장을 공천하면 정당을 믿고 투표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는 걸 헤아려 보고 했어야

하는데 공천폐지가 좋다고 하고 득표가 급하니까 공약을 해버리게 처음부터 잘못 된 것입니다.

**이용식:** 포퓰리즘이 경제 복지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각계에 많이 있습니다. 공천폐지도 전형적인 정치포퓰리즘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지방은 다릅니다. 서울에서 대부분 유권자들이 시의원이나 구의원 후보를 거의 모릅니다. 정당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이 소수의 표를 얻어 당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은 정 반대입니다. 한 집 건너 사돈의 팔촌이고 문종이 겹쳐 다 잘 압니다. 군수들이 많이 구속된 것만 보더라도 대표행위가 일어납니다. 서울에서 돈 벌어 내려간 사람이 대표해서 당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론적 측면에서 정치발전을 위해 공천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더구나 무공천을 고리로 야권통합을 이루었다는 건 정치기분이 돼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동 끝에 바로 잡히긴 했지만 잘못 된 것이었습니다.

### 지역 명망가 찾는 제도 만들어야

**문명호:** 그럼 공천에 따른 폐해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용식:** 공천폐지 명분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에 줄서기를 하니까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측이 되고 지방자치가 발전을 못하며 여의도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생활정치보다 중앙정치의 확대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줄서기를 안 하도록 하면 되는데 사람이니까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앙당에서 통제하면 됩니다. 공천권을 국회의원 개인이 갖기보다는 여러가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중앙당에서 지역 명망가를 공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자리를 위협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절대로 키우지 않으려고 권한을 행사합니다. 국회의원의 그런 권한만 실제로 포기하면 중앙당에 예측시키지 않고 좋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됩니다.

**이덕주:** 문제는 각 지역의 사정을 국회의원들이 가장 잘 안다는데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기반과 지자체에서 나서서 당선되는 기반이 상생관계에 있고 서로가 물고 물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중앙당에 예측되면 안 된다는 건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용식:** 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완벽한 제도는 없겠지요. 그러나 무공천에 따른 혼란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무공천은 기만적이기도 합니다. 공천을 안 한다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 사람이고 어느 당 사람이라고 다 알 수 있도록 조정과 작업을 해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명호:** 특권을 포기하면 된다고 했는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용식:**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포기하는건 어렵겠지요. 공천시스템을 정비하면 문제점을 많이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걸러 3배수를 시도당을 통해 중앙당에 보내 최종 추인을 받도록 한다든지, 가능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명호:**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유능한 후보자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덕주:** 지금껏 지방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표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열기에 편승해서 뉴타운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이 서울의 25개 구에서 상당수가 당선된 걸 제외하면 공약이 별로 먹이지 않았습니

5면으로 이어집니다.

# 지자체 파산 - 국민 감사제 도입 필요

## 풀뿌리 민주주의 개선책 없나

談



이 용 식

·문화일보 논설실장  
·관훈클럽 총무

때 : 2014년 4월 18일  
곳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모란실

**이덕주:** “국민은 영원히 성숙하지 않는다”고 일본의 어느 작가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내편과 네편이 완전히 갈려있어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믿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상호 대안정당이 돼야 하는데 그럴지를 못 합니다. 정치풍토가 6·25 이후의 좌우대립을 해소하기 보다는 일부 중북세력의 정치행태에서 보듯 심각한 양상으로 갑니다. 북한의 무인비행기가 세 곳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한 어느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면 적나라한 북한지지발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통일이나 돼야 해결이 되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용식:** 진영논리나 양극화 편가르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영남 선거에서 민주당이 20%, 30%까지 득표를 해 영남 진보세력의 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호남의 보수세력도 느린 진도이긴 하지만 역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컨대 안철수 대표는 태생이나 정책을 깊이 들여다 보면 보수성향입니다. 그동안 영호남 지역감정이 이념대결로까지 가는 나쁜 상황이었는 데 30대의 젊은 층에서 이념 의식이 벌어지는 기미여

표현을 썼습니다. 최악(最惡)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의 선택이라고 할까요.

**문명호:**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을 직접선거로 뽑는게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덕주:** 우리나라에서 기초단체장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임기중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벌여 재정을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방공무원들의 비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군수의 경우 보통 연간 3천억원의 예산을 다루고 500~800명의 직원 인사권을 행사하며 인허가권이 3천개에 이른다 하니 그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 대신 임명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초의회는 폐지하는데 찬성합니다. 여야가 이를 합의해 놓고도 그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지자체 개선책으로 선거직을 견제하는 기능을 두어야 합니다. 주민소환제와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도입돼 있고 국회의원들에게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서두르고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빨리 도입, 실시해야 합니다.

**이용식:** 지자체 파산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감사청구권 제도도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현행 3단계 행정체제를 광역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행정체제는 조선8도 시대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통신과 교통이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 했으므로 시 군 구 지자체간의 중복업무영역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당은 무책임, 야당은 집안싸움

**문명호:** 좋은 개선책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요.

**이덕주:** 여야 정치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조차 발목이 잡혀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입니다. ‘입을 위한 행진곡’의 5·18행사 지정곡 법제화라든지 방송사편성위원회의 노사경영진동수 구성 법안 등을 여당이 처리해 주지 않는 한 다른 법안도 손댈 수 없다고 야당이 엉뚱한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용식:** 여당은 다수당, 웰빙당으로서 강력 추진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무책임합니다. 야당은 집안 싸움에 몰두하는 형상입니다. 국민에게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이기 보다 당내 주도권, 공천권, 당권장악에 주력합니다. 야당이 약하니까 여당도 웰빙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양김 때처럼 강력하게 하면 여당이 정신을 차리고 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지지율 40%가 나오고 야당은 아무리 합쳐도 20%, 10%대로 떨어져 여당이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중도로 클릭해서 집권을 노리는 세력이 당 주도권을 잡아야 하고 그제 자극제가 돼 여당이 더 책임있는 정치를 하는 경쟁의 선순환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명호:** 외국의 기초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이덕주:** 일본의 지자체에는 무보수 봉사 명예직의 참여가 많습니다. 자기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지자체 일을 합니다.

**이용식:**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모두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강한 지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앙정치와의 고리를 끊고 지방공약을 갖고 판단하는 그런 지방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 지자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많이 두고 지방의원은 처음 그렇게 출발했던 것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도 법에는 무보수입니다.

**이덕주:** 지난해 기초의원 한 명이 발의한 조례는 평균 04건이었다고 합니다. 연 5천만원 안팎의 보수에 해외여행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데 그런 생계형 정치인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 중앙정치 예측서 벗어날 종합대책 마련을 공짜공약 가려내고 買票행위 없도록 해야

4면에서 이어집니다.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공약보다는 그 정권에 대한 지지 여부가 지방선거를 좌우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국회의원과 대선에 비해 공약이 유권자의 투표요인이거나 기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용식:**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은 어느 정도 사람 이름을 보고 찍습니다. 지방선거에선 더욱 후보자를 보고 찍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대선보다 더 모르고 번호보고 찍는게 현실입니다. 당을 보고 찍는 것입니다. 공약집을 돌려도 그걸 보고 찍지 않습니다. 공천하든 안 하든 심각한 딜레마이고 지방선거의 큰 문제입니다. 캠페인을 해서 꾸준히 바뀌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인물위주 아닌 정당선택의 유권자 선택

**이덕주:** 그렇게 외국과 다릅니다. 외국에선 하나의 커뮤니티가 있어 그 지방행정에 누가 적합한 사람인지 그대로 드러나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이 용이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를 정도니까 무슨 기준으로 뽑습니까. 우리나라 유권자의 투표성향은 인물위주가 아니고 정당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식:**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의 근본문제입니다. 미국, 영국을 보면 정치할 사람들은 대학때부터 정치활동을 하고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해 큰 단위의 정치를 해가는 정치충원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어느날 갑자기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출마합니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보면 서울시장이 됐거나 되려는 사람들이 서울시 행정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충원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장기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문명호:** 유권자들의 의식 문제는 어떻습니까.

서 조심스럽지만 조금은 진영논리가 약화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언론역할이 중요하고 현역 언론인은 물론 원로 언론인들의 모임인 대한언론인회와 같은 언론단체의 역할이 긴요합니다.

**이덕주:** 희망적 관측인데요, 저는 비관적입니다. 부산에 호남출신이 30%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는 언제든지 야당 고정표입니다. 영남의 20~30% 야당지지율도 호남출신 표입니다. 수삼년 가까운 장래에 영호남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이용식:** 저도 2~3년 안에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 정도는 내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의원, 안철수 대표, 모두 부산출신이 아닙니까. 조금씩 바뀌지 않나 봅니다. 진영논리가 살아 있는 한 정책은 먹히지 않고 지방선거는 어렵습니다.

여객선사고 선거영향 관심

**문명호:**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시죠.

**이덕주:**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서울시장에 누가 되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어느 당에서 많이 당선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초반에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었습니다. 진도앞바다 사고와 북한의 무인기 남한내 추락 등 변수가 있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단적으로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이용식:** 누구를 찍어야 할지 말할 수는 없어도 공짜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 찍어선 안 되고 실제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주:** 정치인으로서 애국자는 없습니다. 자기자신이 우선입니다. 애국애족을 믿으면 안 됩니다. 국민이 그걸 파악할 때 정치의식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용식:** 그래서 저도 애국자가 아니라 애국심이란

# 北무인기등 도발 보복조치 취하라

지난 4월 11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최근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그리고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3개의 무인기는 모두 북한의 소행임”을 ‘소형무인기 중앙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군이 오랫동안 과학적인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동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속성으로 보나, 발견된 무인기들에 표기되어있는 각종 징표(徵標)들을 보나 발견즉시 그것은 북한의 소행임을 알 수 있는 북한의 또 다른 형태의 대남도발이다.

## 국민 불안감 심각한 문제

무인기와 관련해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백령도에 추락된 무인기는 항속거리 250~300km 추정, 체공 시간 2시간 30분, 해병대 6여단 등 서북 도서 군부대를 촬영한 사진이 있고,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삼척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며 항속거리는 180~220km 추정, 300m정도 높이에서 통일로를 따라 파주-청와대·경복궁 등을 통과하면서 190여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적의 비행체가 대한민국의 핵심심장부 및 군부대 위 상공까지 유유히 와서 사진을 찍었다는 행위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소형폭탄(국방부는 2~3 kg을 장착가능하다고 발표)을 실을 수 있고 작전반경이 600~800km나 되는 무인기를 북한은 수 십대나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소형 폭탄을 실은 무인기들이 파주에서 추락한 비행기처럼 유유히 청와대 상공까지 올 수 있음을 상상할 때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도발을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던 우리의 안보역량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크게 자성하면서 특단의 대책들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최고통수권자의 질책이 있었고 국방부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 미흡한 부분 보완을 위해 최선의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한국의 안보역량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리고 지금 무인기 도발 등 북한이 계속 다양한 형태로 자행해오는 다종의 도발들에 대해 사전차단 및 사후 보복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안보역량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이는 안보상 심각한 문제점이다. 본 문제점들을 치유키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들이 시급히 필요하다.

## 지휘권자 강한 신념 - 실천력 필요

첫째, 완벽한 국가안보를 위한 최고통수권자 및 안보역량 지휘권자들의 강한 신념과 실천력이 필요하다. 국가안보는 강한 신념과 실천적 행동이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국가안보는 구호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혹은 “향후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반드시 도발의 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을 공격하겠다”라는 “향후 북한도발 불용”을 그 동안 최고통수권자를 비롯하여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 등이 수없이 천명했다. 그러한 천명들은 대국민약속이며, 적에 대한 실천적 조치의 선언이다. 절대로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행동적인 조치를 해야만 한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의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이미 저지른 도발에 대한 보복조치는 더 중요하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안보역량을 신뢰하고 적은 상대방을 종이호랑이로 취급하지 않는다.

둘째, 북한의 예상치 못한 도발들을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는 억제역량(Deterrence Power)을 조속하게 구비하여야만 한다. 국가안보역량 중 억제역량은 안보역량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국가적 재앙은 반드시 사전에 간파하고 사전에 차단함이 국가안보의 근본 중 근본이라고 이스라엘의 안보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주장한다. 국가안보에서 “적의 예상치 못한 도발”이란 변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정보기관의 존재가 그토록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인구 600여만인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명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6개의 저명 국가정보기관들을 보유하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7개국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살이 분석하면서 이스라엘을 해치는 재앙이 재앙으로 현실화되기 이전에 반드시 사전 차단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국가안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국정원이나 기무사 혹은 군정보기관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도 없다.

## 특별기고



###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정치학박사

## 안보재앙 다키기전

## 철저히 차단하는

## 이스라엘 본받아야

## 합법-비합법 역량

## 총동원 자세로

## 실천의지 보여야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우리의 억제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역량 재정비 및 강화, ‘전문 인력+첨단장비’ 능력제고, 한미연합방위체제 적극적 가동, 이스라엘의 억제 역량 협조, 한·중 간 전략대화 및 협조요구, 국내의 전문 인력 동원, 북한 재도발에 대한 분명한 응징보복의지 전달 등 제 방안들을 검토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기존역량 중, 예를 들면, 공군이 기존 실시하고 있는 여명(黎明) 초계비행은 여명에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근접 상공 24시간 실시, 도발물체 발견 시 격추, 전국 각 비행장 공역들 책임정찰 및 방어 등 기존역량을 제고해야만 한다. 우리의 산업능력, 동맹국 능력 등 우리의 능력과 여건은 얼마든지 억제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 평양 상공 찍어 공개등 검토해야

셋째, 우리의 보복역량(Retaliatio Power)을 조속히 강화하고 실제 도발에 대해 반드시 보복을 가해야만 한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보복할 줄 모르면 그 안보역량은 안보역량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한 행위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받고도 보복할 줄 모르는 한국의 안보태세를 보고 이스라엘 안보전문가들은 “그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라고 호된 비판을 한다. 금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미군 스텔스기를 동원, 평양상공을 몇 바퀴 돌면서 온갖 사진을 다 촬영하여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북한의 청와대 사진촬영이라는 북한도발에 대한 정당방위요 정당한 보복활동이다.

넷째, 최대한 동맹국 공조+국제공조를 해야만 한다. 차단역량과 보복역량 증대를 위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전략적 파트너의 협조력을 점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의 도발을 예방하고 보복하기 위해서는 합법·비합법 역량을 총동원해야만 한다. 유엔에 제소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합법적인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최대로 활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비합법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경우 모범생처럼 합법적인 방법만으로 상대방을 대응해야만 한다는 자세는 버려야만 한다. 상대방이 비법적인 도발을 하는 경우 그에 버금가는 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사전예방 및 사후 보복을 해야만 한다. 조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조폭통제에 효과가 있는 조치들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 합리적인 안보대응이다.



## 개화산 둘레길 산행 안내

대한언론인회산악회는 아래와 같이 서울 강서구에 자리한 개화산과 치현산 둘레길로 회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강서둘레길로 불리는 탐방로는 서남환경공원, 메타세콰이어 숲길, 치현정, 약사사, 개화산전망대, 봉화정, 아라뱃길전망대, 신선바위, 미타사, 호국충훈비, 하늘전망대, 습지생태공원 등 역사, 문화, 자연생태 등과 어울리는 명품 순환 코스입니다.

-아 래-

- 일 시 : 2014년 5월 16일(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방화역 3번 출구(5호선 종점·강서구 김포지역)
- 회 비 : 10,000원(중식대)
- 준 비 물 : 춘계 등산장비
- 문 의 : 010-7276-6211(정운중 회장)  
010-2691-0084(나용경 총무)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 獨島관련 美 ‘러스크 서한’은 무효다

현재 일본의 집권세력인 아베정권은 강한 우파사상을 가진 정권이므로 그 동안의 일본정부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오판이 된다. 그들의 사상은 일본 내 우파나 극우파들의 사상과 대부분 일치하고 그 사상을 행동에 의해 실현시키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1) 태평양전쟁은 백인지배로부터 아시아인을 해방시킨 아시아해방전쟁이었고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오로지 패전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2)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얘기는 모두 꾸며낸 얘기고 증거가 없다. (3) 연합국들이 정치쇼로 만들어낸 A급 전범이란 일본법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전쟁 중 국가공무원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불과하다. (4) 미국과 싸워서 패전했기 때문에 침략국가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과 같이 전쟁을 수행하여 백전백승할 것이다. 그것으로 일본의 과거는 모두 깨끗이 씻어질 것이므로 일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식 군대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 (5) 전쟁을 시작하면 당연히 전사자가 나올 것이니 야스쿠니 신사를 다시 국민적 묘지로 부활시키고 누구나 참배할 수 있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6)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50%의 국민적 지지표가 필요하므로 국민들에 대한 우경화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투표수가 50%를 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교과서를 개정하고 ‘망언’을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세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7) 독도와 센카쿠열도 문제를 강조하여 국민들에게 정식 군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등. 위와 같은 우파정권의 주장 중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일본측 독도영유주장 하나를 소개, 분석하고 그 극복책을 제시한다.

## 일본의 세 번째 독도영유논리, 그 비판과 극복

일본은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워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세 번째 논리는 다음과 같다. “1945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기초 과정에서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되었고 1951년 7월 한국은 독도를 한국영토조항에 기재해 줄 것을 미국무성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승만평화선을 선포해 현재까지 독도를 불법점거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 발언이야말로 ‘한국에 의한 독도불법점거론’의 본질을 말하고 있으니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저 일본이 여기서도 크게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즉 미국의 견해가 마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인국이었던 모든 연합국들의 의견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미국은 전략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려고 한 것이 사실이다. 1949년 12월 일본에 있던 미국무성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는 ‘1905년 이래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 하에 있다’는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면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미국무성을 설득했다. 그후 한국전쟁이 시작되어 한때 공산화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을 보고 미국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망명처까지 고려할 정도가 되었다.

이때쯤 미국은 미국의 국익과 냉전에 대처하기 위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만의 견해였고 다른 연합국들, 특히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강하게 주장해 미국과 대립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최종 조약문 속의 ‘한국영토조항’에서 독도의 명칭이 사라진 것은 이런 연합국들의 독도를 둘러싼 대립을 절충하는 의미가 있었다.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은 독도가 한국영토로도 일본영토로도 기재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그 사실은 일본 측이 주장하는 ‘독도는 일본영토로 남았다’는 내용과 전혀 다르다.

독도는 1946년 연합국에 의해 한국영토로 계획되었다(SCAPIN 677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1946년의 사실을 부정하는 어떤 조항도 없기 때문에 금반언(禁反言)의 국제법 법칙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951년 7월 19일 한국정부는 미국소재 한국대사관의 양유찬대사를 시켜 ‘독도명칭을 한국영토조항에 삽입해 줄 것을 미국무성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미국무성은 이에 대해 검토를 했으나 1951년 8월 10일자로 공식문서 ‘러스크 서한’을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송부했다. ‘러스크 서한’

## 특별기고



호소카 유지

·세종대교수·정치학

## 샌프란시스코조약 서명

## 연합국 동의 없이

## 51년 美서 일방송부

## 日의 유효성 주장

## 논리적으로 안맞아

## 실효지배 영향없어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미국)의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중략)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 섬 관할하에 있고 일찍이 한국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중략)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바로 독도는 사실상 일본영토라는 취지의 문서가 공식문서로 대한민국 주미대사관으로 발송된 것이다. 일본은 이 문서야말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결정한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로 이 문서는 연합국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대한민국에만 보내진 비밀문서였다는 내용들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 벤 플리트 대사의 극비문서인 귀국보고서(1953.8)에는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라고 기재되었다. 즉 ‘러스크서한’은 대한민국에만 비밀리에 통보되었고 다른 연합국에는 공표가 안 된 문서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연합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될 수 없다. 즉 ‘러스크 서한’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으로서는 무효인 셈이다. 어디까지나 미국의 견해일 뿐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책임자였던 델레스대사가 1953년에 미국무장관이 되었는데 그는 비밀문서에 ‘독도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많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서명국들 중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라고 기재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견해는 미국만의 것임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러스크 서한’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것은 왜곡된 의견이고 ‘러스크 서한’은 미국만의 견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당시의 미국측 조약책임자까지 증언했다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그러므로 ‘러스크 서한’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일본측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기 시작했다는 일본의 논리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러스크 서한’ 자체가 무효인 사실로 인해 그 논리도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

1952년 1월 한국정부가 해양주권선언을 선포하여 이승만 평화선을 긋고 독도를 한국영토로 선포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독도는 일본영토이니 한국은 독도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연합국은 하나도 없었다.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이 독도를 계속 지배해 왔기 때문에 연합국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연합국들이 아직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3개월 전인데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묵인했다. 이승만평화선자체는 독도 문제와 크게 관련이 없다. 이승만평화선의 주목적은 일본 선박에 의한 동해 점령을 막는데 있었고 어업문제가 주된 규제대상이었다. 이승만평화선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선포되었다는 식의 일본측 주장은 왜곡된 주장이다. 당시 한일간의 조약이 없었으므로 무법인 바다 위에서 힘의 논리로 일본이 한국측 어장을 휩쓸 것을 우려한 한국 측의 정당방위 선언이 한국의 해양주권선언이었고 이승만평화선 선포였던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위와 같이 논리적으로 극복해야만 독도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서양선진국들을 설득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성명을 그들한테서 끌어내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국익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므로 국제법에 입각해서 일본의 책동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야 할 것이다. [4]

## ‘반기문평화랜드’로 체력단련 갑니다

대한언론인회는 오는 5월 23일(금) 봄철 체력단련행사를 충북 음성 반기문평화랜드에서 갖습니다. <탐방코스> 당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출발, 음성 반기문평화랜드-충주 탄금대-청풍호 경유 서울도착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732-4798 또는 팩스 02-730-1270으로 신청바랍니다.(신청은 5월 15일 하루만 받습니다. 선착순 80명)

大韓言論人會

# 재벌임원 고액연봉 투명하게 하라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상장기업 등기임원들의 개인별 연봉 규모가 처음으로 공개돼 일반 봉급소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어마어마한 수령액을 놓고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연봉 공개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올해부터 발효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전에는 전체 임원들의 연봉을 모두 합친 금액만을 공표하도록 돼 있었다.

## 2~3%지분으로 거대그룹 지배

재벌닷컴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까지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148개사의 등기 임원 개인별 보수 지급 현황을 집계한 결과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은 699명으로 전체 등기임원 1만2,748명(퇴직자, 사외이사 및 감사 포함)의 5.5%를 차지했다. 연봉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등기 임원 가운데 자산 순위 10대 그룹 소속 계열사 등기임원(퇴직자 포함)이 전체의 29.5%인 206명이었다. 3명 중 1명은 10대 그룹의 전·현직 임원이었다.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기업인들도 재벌 가문 구성원이었다. 이들은 산하 계열사 중 적게는 하나, 많게는 4~5개 기업의 등기이사로 등록해 30억 원대에서 300억원대까지의 연봉을 수령했다. 보수총액 상위 100명 가운데 비오너 전문 경영인은 41명이었다. 고액 연봉을 받은 등기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재벌가문이 차지했다. 재벌 집안 사람들은 주식배당도 받고 연봉까지 챙겨 핏 먹고 알 먹은 셈이다. 우리나라 재벌 그룹의 오너들은 불과 2.3%밖에 되지 않는 지분으로 거대 그룹을 지배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경영 참여 명목으로 거액의 보수까지 받는다.

5억 이상 연봉을 받은 여성 등기임원은 전체의 1.9%인 13명에 불과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 여성 가운데 전문 경영인은 단 한 명뿐으로 나머지 12명은 모두 재벌총수 자녀이거나 오너 집안 출신이었다.

## 정당한 대가여부 가늠할 수 없어

이처럼 고액연봉 임원들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이유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가 적자를 냈거나 개인적으로 회사 경영실적에 기여한 것이 없는데도 고액연봉을 가져가는 것을 통제하여, 임원의 보수체계를 합리화 하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처음 공개됐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임원 보수체계는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억원 이상 연봉을 받아야 하는 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등기임원들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어느 정도 기여해서 초고액 연봉을 받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임원의 연봉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 근거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다. 미국의 애플사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의 경우 그의 보수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를 주주총회 전 의결권 행사 참고서류인 ‘위임장 권유 신고서’에 5쪽에 걸쳐 상세하게 기재해 놓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액 연봉의 근거를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경영실적이 없거나 좋지 않은데도 오너를 비롯한 재벌가 사람들이 거액의 배당을 받고 고액의 연봉까지 챙기고 있어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임금 양극화 현상 우려 목소리 높아

연봉이 5억원을 넘는데도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양극화 현상 가운데 임금 양극화 현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등기이사 평균 연봉은 일반 직원들 평균 연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세종대 석좌교수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보수총액 상위  
100명중 반 이상이  
오너 집안서 차지

산정기준등  
제대로 안밝히고  
거액배당까지 챙겨

봉의 20~64배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미국보다는 낮지만, 유럽연합(EU)의 대기업들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한 재벌 연구가에 따르면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기업 등기이사들의 연봉은 2억~5억원에 그쳤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이 미국식 자본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최고경영자들에게 초고액 연봉을 주는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모두 1천16만여 명으로 4년 동안 40만 명 정도 늘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장인은 같은 기간 19만 4천여 명에서 4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총급여 5억 원을 넘는 고액 연봉자가 6천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고액 연봉자 중 올해 처음 공개대상이 된 상장사 등기 임원 699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등기 임원이 아닌 총수 일가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일 것으로 추정된다. 재벌 오너이면서 미등기 임원의 경우 연봉액이 얼마며 급여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바로 이런 통계 수치가 연유한다.

## 미국·유럽등서도 논란 일어

대기업 CEO들이 ‘제값’을 하고 거액을 챙기는지에 대한 논란은 국내에서 뿐 아니라 고액 연봉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밝히도록 돼 있고 각종 규제 장치를 두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고액연봉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회적 논란은 금융권을 비롯한 일부 CEO들의 고액연봉을 부추겨온 미국에서 비롯됐다. 2008년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권의 천문학적 보너스에 이어 일반 대기업 CEO들의 고액 연봉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1%에 대한 99%의 저항이었다.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기업 임금 조사업체인 에펠리 자료를 토대로, CEO들의 ‘고무줄’ 보수 체계가 사회적으로 적절한 연봉 책정을 가로막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할 정도다. NYT는 “지나치게 높은 미국 기업 CEO들의 연봉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두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받는 임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역내 상장기업에 대해 CEO의 보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내놓았다. 미셸 바니에르 EU 금융서비스 집행위원은 28개 회원국의 상장사가 CEO 보수에 대해 주주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EU 전역의 1만여개 상장사는 경영진에 대한 보수 정책을 공개하고, 회사가 정한 CEO 보수에 대해 주주 표결을 거쳐야 한다. 또 경영진과 일반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로이터 통신은 “CEO 연봉 제한은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CEO의 고액 연봉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의식해 내려진 조치”라고 전했다. 작년에 스위스에서는 최고경영진의 보수를 평균급여의 12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안이 나와 부결되기는 했지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고액연봉에 대한 사회적 회의와 우려를 나타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임원의 연봉수준이 높다고 보고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경영책임을 지는 임원은 경영실적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받아야 하고 높은 수준일 수 있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을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올해 공개된 고액연봉 수령실태를 보면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 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기업측의 임원보수체계 합리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W]

## 윤주영 원로회우 사진전 열어

윤주영 원로회우(86·조선일보 편집국장·문화공보부장관 역임)의 사진전이 4월 9일부터 1주일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잔상(殘像)과 잠상(潛像)’을 주제로 한 이 사진전은 윤주영 회우의 35년 사진작가로서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동안 촬영한 70만장의 사진 가운데서 180장을 고른 진수들이다.

장관을 그만둔 뒤 취미로 시작했던 사진작가로서의 이력이 그 전 이력을 뛰어 넘은 오늘로 안데스에서 네팔을 거쳐 인도를 찍었다. 사할린을 세 번이나 갔고 우리광부들과 어머니의 모습



윤주영회우 사진전 (원내는 윤 회우)

등 정감 있는 사진들이 많다. 특히 ‘우리들의 어머니’ 사진에서는 가난과 고생을 이겨내며 오늘의 한국을 일궈 낸 자식들을 키운 장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날 개막 전시회에는 김은구 회장을 비롯 김영수 도준호 이병현 이상우 이종식 이철영 이형균 정범태 제재형 최서영 회우 등 많은 대한언론인회 회우들이 참석했다. [W]

## 가정의 달 수상

# 그리운 어머니

당신의 이름은 엄마  
당신의 이름은 그냥 엄마  
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러왔고  
진 세월 돌이키는 이 나이에  
당신은 그냥 우리 엄마

다른 이름을 생각해봅니다  
당신께선 나에게  
언제나 믿음이셨으니  
세상에서 제일 큰 산이십니다

당신께선 깊은 가슴  
빛나는 물결이시니  
세상에서 제일 큰 바다십니다

그러나 그중에도 기쁨인 것은  
어디서나 “야야” 부르시던 목소리  
다정하고 온화한 그 목소리

아, 이 세상 온갖 뒤흔침 속에서  
나의 앞에  
나의 뒤에  
눈 비 가려주시던  
오직 한분뿐인 우리 엄마  
영원히 당신을  
엄마라 부릅니다.

이 시를 쓴 나의 심정 그대로 어머니는 나의 영원한 기쁨이었다. 그냥 좋았다. 72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안겨드리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마치 영원히 사실 것처럼 믿고 지냈다. 결혼 후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매일 저녁 어머니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었다.

누구나 어머니에 대한 감회는 각별할 것이다. 훌륭한 어머니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도 어려서 어머니를 여린 수필가 피천득선생은 ‘엄마’라는 글 가운데 어머니를 이렇게 예찬하

고 있다.

〈엄마가 나의 엄마였다는 것은 내가 타고난 영광이었다. 엄마는 우아하고 청초한 여성이었다. 그는 서화에 능하고 거문고는 도에 가까웠다고 한다. 내 기억으로는 그는 나에게나 남에게나 거짓말 한 일이 없고, 거만하거나 비겁하거나 물인정한 적이 없었다.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엄마한테서 받은 것이요, 내가 많은 결점을 지닌 것은 엄마를 일찍이 잃어버려 그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전의 피선생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김후란

·본회 회우·시인  
·전 경향신문 문화부차장  
·‘문학의 집·서울’ 이사장

여쭙본 적이 있다.

“살아오시면서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지요?”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대문을 들어설 때 엄마야 하고 부를 수 없었던 일...”

이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다. 마음껏 매달려 응석을 부리고 싶은 나이에 어머니가 아니게된 목마름, 외롭게 자란 허전함이 절실하게 부딪쳐왔다.

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나의 어머니는 감정이 섬세하고 조용한 분이었으나 주관이 확실했다. 공무원인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인사동

에 제일모사점을 열고 운영했다. 서울 분인 아버지는 예법을 중요시해서 식사 때나 어른 앞에서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찡그리셨다.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꺼내 읽으면 똑바로 쫓아놓아야 했다. 아버지가 소리내어 꾸중하는 일은 없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데...” 혹은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텐데...”하고 간접경고를 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존재감이 뚜렷했고 어렵게 여겨지기는 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그런 가정분위기가 사는데 필요한 기본예절을 몸에 배게 했고 남에 대한 배려와 사양의 미덕을 은연중 알게 했던 것 같다.

50년대 후반 내가 한국일보 기자시절 결혼을 하면서 당시 사회관례대로 퇴직을 했더니 어머니는 “너는 신문사 일도 적성에 맞는 것같고 외아들과 결혼했으니 평생 집에서 시부모 모시고 사는 일이 힘들지않겠느냐”고 점잖게 돌려 말썬했다. 시집살이경험자로서의 어머니의 권고에 따라 나는 다시 기자생활을 했고 그후 20여년을 언론계에서, 그후로도 사회활동과 문화활동을 계속하면서 보람있게 지낸 것이 어머니 덕이라 하겠다.

근래 어린자녀를 학대하는 나쁜 부모기사가 날때마다 너무나도 슬프다. 한 가정에서 부모는 태양이다. 그 태양 빛의 포근한 사랑에 힘입어 어린 새싹 같은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 건강한 가정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또한 부모은공을 마음깊이 안고 사는 것이다.

시인이 된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손을 고틱 잡아주시던 어머니. 이제는 그 손을 잡을 수 없으니 그것이 가장 마음 아프다. 5월 어버이날은 부모와 가족에 대한 애뜻한 정을 새기고 추억하고 그리워하게 하는 달이다. [국문]



### 그때 그 사진

#### 활짝 핀 어버이날

2001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성북구 길음 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에게 어린이들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환하게 웃고 있다. (권주훈 전 한국일보 사진부장 제공)

‘나 같은 경우, 너 같은 경우와 틀려서 사진을 찍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우리의 귀에 매우 친근한 요즘의 세태언어다. 당장 눈앞의 상황을 설명해 보라 하면 대부분 위 문장의 한 부분을 중얼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소통수단인 말은 간결하고 예의 발라야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했다. 시의적절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라 했다. 그런데 요사이 말은 알맹이의 전달보다는 습관적인 표현구조에 함몰되어 있어 그 진정성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문장은 ‘나는 이럴 때 사진을 찍어두지.’라고 하면 충분히 의사전달이 될 내용을 예뉘러 시쳇말로 표현하고 있는 모양새다. 어지간히 말거나 한다는 사람도 회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나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고 서두를 땀다. ‘나는’ ‘우리나라는’이라는 당당한 의사표현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너 같은 경우와 틀려서’라는 표현은

## 일그러진 우리의 말꼴

참으로 위험한 말버릇이다. 상대방의 생각이 자기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틀렸다’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반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사진을 찍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에서 ‘좋은 것 같아’라는 말은 청소년 사이에서 이미 관용구가 되어버려 이제는 어찌 해볼 방법이 없지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표현기법은 최근 들어 갑자기 확산되고 있어 염려스러운 경우다. 각각 ‘말씀을 듣겠습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결과를 눈여겨보겠습니다.’라고 해야 의지가 즉각 전



최병요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달된다. 우리의 언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송매체의 아나운서 앵커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앞장서 스스럼없이 사용함으로써 유행시키고 있는 말본새다. 특히 스포츠 중계 팀의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해설은 우려되는 바가 심히 크다. ‘보다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골을 넣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모습은 겉모양이다. 축구경기는 상대의 골에 골을 넣어야 하는 승부경기인데 왜 넣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할까? 혹 어차피 골을 못 넣을 것이니까 마치 넣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만 보이라는 뜻에서 하는 말일까?

주의 깊게 살펴보니 교과서적이거나

의식적으로 구사하는 표현이 아니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습관적이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었다는 뜻이다. 주위에서 다 그렇게 사용하니 거부감 없이 몸에 익힌 것이다.

따라서 이는 세대가 적나라하게 투영된 결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말하는 자기와는 책임소재의 함수관계가 없다는 잠재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각과 감정에 자신감이 없음을, 항상 남을 의식하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있음을 반증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개화기에 우리 말글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앞장섰던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은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지적하면서 “자국의 언문을 존중해 사용하는 것이 나라를 보존하고 흥성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셨다. 우리도 모르는 새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회피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말꼴을 바로 세우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문]

## 세월호

## 판박이 비판-선정적 보도 난무

“아빠,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무서워, 엄마 말 못 할까봐 미리 보내놓는다. 사랑해, 어떡해, 엄마 안녕, 애들아, 모두 살아서 보자.” 진도 앞바다에 침몰하던 여객선 세월호에서 전해진 사연 하나하나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엄마 아빠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메시지다.”(세계일보 4월17일 사설)

‘전원구조’라는 스팟 자막의 안도는 순간의 오보. 온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세월호 침몰 참사는 쇼크 그것이다. 신문들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등 판박이 주장을 쳐들었다. 허둥댄 정부를 향해 “이게 나라냐” “3등국가”라고 조소를 퍼부었다. 그러나 2만5천명의 기사를 가진 언론도 세월호 침몰을 보며 자신들은 1류인지 자성해야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선정적 보도를 참다못해 “사실만 보도한다”는 등 10개항 준칙을 발표했다.

일이 터진 뒤에 요란하게 비판하기는 쉽다, 언론이 작은 사고에도 사명감을 갖고 심층보도하여 대책을 요구하는 경종을 울렸다면 세월호의 참극은 없었을 것이다. 언론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선장의 직무유기는 살인

국내의 신문들이 승객에게 꼼짝 말라고 선내 잔류를 지시하며 선원들과 먼저 도망가 5만원 권을 말린 선장 이준석을 질타했다. 동아는 4월22일 ‘직업 윤리도, 인간의 도리도 저버린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사설에서 “승무원들이 위키토키를 통해 10여 차례 승객을 탈출시킬지 물었으나 답이 없었다고 한다. 매뉴얼대로 ‘구명조끼를 입고 제자리에 앉아있으라’고 방송한 것도 이 때 문으로 보인다. 침몰할 무렵엔 해경만이 아니라 민간 어선 40여 척도 구조 활동에 대비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바다에 뛰어내리기만 해도 살 수 있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때 선장이 배와 운명을 같이한 이후 이것이 ‘전통’이 됐지만 ‘최근 2년 사이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선장이 승객들을 침몰선에 버려놓고 제일 먼저 달아난 일이 벌어졌다. 자랑스러운 국제적 전통을 깬 것이어서 해양 전문가들

에게는 충격이다’라고 지적했다”고 탄식했다. 문화는 21일 ‘교신기록서 거듭 확인된 탈출기회 봉쇄, 살인행위다’ 사설에서 “세월호 교신 기록은 실제 상황이라고는 차마 믿을 수 없는 ‘살인극 대본’이나 마찬가지다. 탈출 호기였던 최초 시간대를 그냥 내버리다시피한 죄과를 거듭 확인시켜준다. 직무유기와 무책임 그 자체다. 그 선장 그 선원을 탓하기에도 지쳐 해경에 돌려 묻는다. 왜 더 단호하게 ‘승객 전원을 탈출시키고 또 모든 선원을 퇴선시킨 뒤 선장이 다시 보고하라’고 명령하지

##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난대책 사령탑, 현장형·맞춤형이 맞다’, ‘리셋하라, 대한민국 재난 대응 시스템’ 등 안전관련 사설을 집중 게재했다. 경향은 ‘세월호 참사, 한국사회 구조적 모순의 표출이다’는 사설에서 “위험작업을 비정규직, 일용직에게 떠넘겨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한 한국은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는 이런 위험사회의 성격을 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신문들이 해운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선박 도입과 개조, 화물 적재·운항 감독, 정기 및 수시 선

참다못한 기자협회 ‘보도준칙’ 발표  
기자들 스스로 1류인지 돌아볼 때

않았는가”라고 썼다. 이준석은 그런 지시도 목살할 위인이다. 조선은 21일 1면 머리로 ‘세월호와 해경이 서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선장 자신이 탈출하면 승객도 당연히 탈출하라고 해야 맞지 않나? 이준석은 해경의 지시로 탈출한 게 아니다. 해경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이 인터넷에 뿔다. 차라리 외국 언론처럼 왜 과감히 선내 승객 구출작전에 돌입하지 못했나를 더 따져야 했다.

## 교육부 방만행정도 따져야

전 학년 수학여행을 한 곳으로 데려가게 한 교육부, 교육청의 방만한 행정도 질타해야 했다. 사라진 꽃다운 생명이 보답하는 길은 재난방지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다. 중앙은 ‘형사 사법도 안전 중심으로 재편하자’, ‘제대로 된 국민 안전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재

박 검사, 안전훈련 감사 등 선사와 얽혀있을 해운 관련자들의 유착가능성이 부각된다. 법치국가는 시스템이다. 신문들은 그 부실의 정점에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지 못한 부실한 국정감사, 선박 안전 관련 법안을 깔아뭉개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소홀했다.

한겨레는 21일 ‘재난 보도, 언론의 품격이 절실하다’ 사설에서 홍모 씨라는 가짜 민간잠수부가 해경이 구조를 방해했다는 유언비어를 인터뷰로 전한 MBN의 사례 등을 겨냥, 무분별한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또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북한 소행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썼다. 하지만 대형사건 때마다 역병처럼 번지는 자작극, 음모설은 외면했다. 서울시장의 해산을 청구한 종북 매체인 자주민보가 ‘미군 잠수함 총

돌설’을 퍼트려 국방부가 수사의뢰한 것을 모를 리 없는 한겨레가 이를 함께 비판하지 않은 것이다. 훌륭한 매체라면 좌우를 골고루 살펴야 한다.

앞으로 북핵이 터진다면 최악의 재난이다. 신문은 어떻게 대비할지 물어야 한다. 국민을 불안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비무환이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짚은 신문은 못 봤다.

## 정청래 ‘무인기 코미디’ 발언 난타

과주 무인기가 동호인들 것 같다는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덮여질 뻔한 북한 무인정찰기가 백령도와 삼척에서도 발견돼 얼마나 남한을 누볐을까 큰 우려를 자아냈다.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합당하면서 다짐한 새정치연합의 정청래 의원은 아래아 한글이 기체에 쓰여졌다고 “북한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건 코미디다”라고 발언해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한국일보는 15일 사설로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정 의원이 사회 일각의 조작설이나 음모설을 객관적 근거 없이 공개적으로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당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판단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野대표 ‘정청래 공개 경고’, 이래야 음모론 발 못 붙여”, 동아는 “北무인기 증거 속히 찾아내 김정은에게 책임 추궁하라”는 사설을 썼다. 아시아투데이 “국회의원이 ‘국회 내 발언 면책특권’을 이용해 무인기가 마치 대한민국정부의 조작극으로 비취질만한 발언을 한 것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의심 살만한 일이다. ‘북한은 선이고 한국은 악’이라는 이적단체 구성원의 고정인식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맹공격했다. 서울신문은 “우리 사회 일각의 무분별한 음모론과 북한의 날조 주장이 험담 먼저 아우 먼저 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셈”, 세계는 “이제 뻔한 북한의 놀음에 그만 놀아날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친북 발언-친북 매체 보도-북의 맞장구. 국회의원이 이런 친북, 종북의 사이클에 얽여 있다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는 신문들의 지적이 부족했다. [4]

당신은 자신의 평소 체온을 알고 있나요? 의외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평소 체온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이 건강할 때의 평소 체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온을 통해 지금 내가 건강하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체온은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혹시 당신의 평소 체온을 모른다면 이 기회에 지금 체온을 한 번 재보자.

## 인간은 온혈(溫血)동물이다.

주위가 아무리 추워도 우리 몸은 일정한 온도(섭씨 36~37도)를 유지한다. 우리 몸의 온기(溫氣)는 유일한 에너지 공급원인 음식의 소화를 통해 대부분 얻는다. 몸에서 만들어진 온기는 20%

가 간으로 가고, 약 20%는 근육으로 간다.

우리 몸의 온도는 신체기관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효소작용이 바로 37~37.5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된다. 만약 우리 몸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핵(오장육부가 몰려 있는 부위) 온도가 3~4도 이상 떨어진다면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런데 저체온 증상일 땐 어떻게 될까? 저체온은 기본적으로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거나 신진대사에 장애가 있을 때 발생한다. 몸이 차갑다는 말은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이뤄지지 않

## 건강상식

## 저체온 조심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체온의 가장 큰 원인은 운동량 부족이다.

현대사회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 요인은 바로 저체온에 있다고 말하며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30퍼센트 떨어지고, 체온이 1도만 오르면 면역력이 500~600퍼센트 향상된다고 한다.

저체온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병을 악화시키지만 반대로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이 좋아져 손상된 세포가 재빨리 복구되어 건강 유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 체온을 1도만 올려도 인간은 스트레스에 강해지고, 평생

병들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 35℃이하 저체온 때 암세포 증식 많아

저체온은 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저체온증을 보이는 사람 중 상당수가 암이나 당뇨, 저혈압,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 또 매사에 의욕이 없고 게으르며 특별한 병이 없어도 몸이 쑤시거나 아프다고 호소한다.

암세포는 35도에서 가장 많이 증식하고 39.3도 이상이 되면 죽는다. 다시 말해 저체온, 몸의 냉기가 암을 만드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 암은 우리 몸 가운데서 열이 많이 나는 심장과 비장,

11면으로 이어집니다.

# 정부 발표 불신 안보불안 키워

무인기

지난 3월 말부터 오늘까지 우리 사회를 헤집어 놓고 있는 북한 무인기 침투-추락 사건과 인천-제주 간 정기 여객화물선 세월호의 침몰은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이 언론에 엄청난 물리적 짐을 지우고 있다.

특히 방송은 세월호의 첫 조난 소식이 알려진 4월 16일 오전부터 21일 오전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 세월호 승객의 수색과 구조상황을 거의 생중계하는 특집뉴스 방송을 계속했고 이후에도 극히 제한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조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수색과 구조 등 조난 관련 방송은 조난자 전원의 수색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아마도 우리 방송사상 이렇게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공중파는 물론 종편과 뉴스전문 채널 그리고 일부 케이블 방송까지 모든 방송사가 이렇게 장시간 방송을 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당초 이번 방송 월평은 이 재난구제 방송에 대해 짚으려 했으나 따로 심도 있는 좌담이 열려 제반 문제를 따지고 바람직한 보도와 재난방송의 원칙을 다루었기에 북한 무인기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됐다.

구체적인 방송 프로그램이나 보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하기보다 안보 문제를 다루는 기왕의 방송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방송 자세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 2주동안 보도 자제 엠바고

북한 무인기 문제는 지난 4월 11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정부가 그동안 주장한대로 북한의 소행으로 본다는 것과 최종 확인을 위해 한미합동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전문가로 하여금 비행 기록을 확인해 줄 GPS 즉 인공위성 위치추적 정보를 검증해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인터넷상에서 정부 중간발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어 가는 동안 국방부 기자단은 정부의 북한 무인기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25일까지 2주간 보도를 자제하는 엠바고를 결정했다.

불명확한 사실의 전파나 왜곡, 과장된 보도는 “북한의 심리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 조성이 우려되며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불필요한 우리의 소모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무인기 보도에 관한 국방

부의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방송의 주요 뉴스 아이템이 돼왔던 북한 무인기 관련 기사는 공교롭게도 국방부 기자단이 2주간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세월호 침몰로 방송에 끼어들 여지가 없게 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서만 계속 보도되고 있다.

애초 파주에서 북한 무인기가 처음

발견됐을 때 당국은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등 석연치 않게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다가 3월 31일 북한이 NLL 이남까지 장사포를 발사하는 도발 과정에

방 송 시 평



오건환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총국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태도를 질타했고 안보 위협을 부풀려 국민의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는 보도에 열을 올렸다.

이런 와중에서 국방 당국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철통 방위와 방공망 형성을 장담했고 방송은 이런 보도를 계속해야만 했다.

구멍 뚫린 방공망을 나무라기 전에 조금만 기술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 소

형 항공기의 저고도 비행을 탐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설혹 저고도 레이더망을 갖춘다 해도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지역에서 골짜기를 파고드는 비

## 종편 TV 검증안된 전문가 내세워 좌파 매체선 조작·음모론 퍼나르기

서 두 번째 무인기가 발견되고 잇따라 삼척에서 심마니가 지난 해 10월 초 청옥산에서 무인기를 발견했으나 카메라만 켜졌다고 뒤늦은 신고를 해옴에 따라 겨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방부가 부랴부랴 무인기는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 석연치 않은 국방부태도 질타

무인기 문제가 터지자 국방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무인기가 위협이 안 되겠지만 핵무기의 소형화, 생화학 무기의 탑재에 엔진 출력 강화 등이 이뤄지고 자폭 기능을 수행한다면 안보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황 대처에 국민들에게 불신을 준 일이 많았던 국방부는 이번에도 무엇인가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고 그 후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장관에게 9일 동안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언론은 연일 국방부의 석연치 않은

행체를 색출하려면 엄청난 숫자의 레이더를 보유해야 한다는 문제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야 했다.

종편에서는 무인기 문제를 다루면서 예외 없이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전문가를 내세워 무인기의 성능이나 기능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시청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불필요한 안보 불안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 오보 지적했다 사과 방송까지

한편 진보 좌파 매체들은 안보 문제에서도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늘 하던대로 정부와 우파 매체들이 안보불안을 부추긴다고 비난하면서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보도만 일삼는 가운데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취재 경쟁에 열을 올렸다.

한 인터넷 방송은 모 신문사가 북한 무인기가 찍은 청와대 사진을 게재하자 2012년 구글이 찍은 사진이라며 대형 오보라고 비난하는 방송을 내보내고는

국방부가 문제의 사진을 공표하자 곧바로 자신들이 잘못 지적했다는 사과방송을 하는 사례를 빗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통상 예와 같이 인터넷이나 SNS상에서는 아마추어 동호인부터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국방부 발표를 부정하는 글들이 쏟아내 정부 불신을 부추기고 있고 나아가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정부의 조작이라는 음모론까지 나오자 방송은 또 이런 예를 퍼 나르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급기야 국회 정보통신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외통위에서 무인기에 쓰여진 “날짜”란 말이 북한식 표기인 “날자”로 표기됐다고 무인기를 북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비교해 “날자”의 서체가 우리의 아래아 한글 서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무인기가 아닐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태로 발전했고 언론은 이를 쫓기에 바빴다.

### 정확한 사실보도 원칙 지켜야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실 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안보 문제를 다룰 때는 아무래도 국가 기밀과 접하게 될 터인데 기밀을 보도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기자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 기밀을 지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기 때문이다.

다음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종 경쟁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특종 경쟁에 나서다보면 자연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소홀하게 되고 과장이나 왜곡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어 정확한 보도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기 쉽다.

또 이번 국방부 기자실의 조치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보도를 유예하는 엠바고를 결정할 수도 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추락으로 제기된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몇 가지 방송보도 원칙을 제기 했는데 이렇게라도 공론에 붙였으면 한다. [국문]

10면에서 이어집니다.

소장에는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암이 빈발하는 위, 식도, 폐, 대장, 자궁 등은 속이 비어 있고 주위에만 세포가 있어 체온이 낮아지기 쉽다. 특히 체온보다 낮은 외부와 항상 통해 있기 때문에 더욱 차가워지기 쉽다.

### 몸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 중요

암을 비롯해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려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몸은 36.5도보다 약간

높은 37도를 유지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히려 36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35도인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전문의들은 체온의 40% 이상은 근육에서 발생하므로 걷기를 비롯한 운동, 입욕 등으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체온이 오르면 혈액 중의 노폐물이 연소 분해되고 혈액을 정화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암과 질병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어느 선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열의

정화작용’ 때문이다.

###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

체온 업 건강법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하나는 ‘체온을 하루에 한 번 일시적으로 올리는 방법’과 또 하나는 ‘체온을 항상 높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걷기, 따뜻한 물 마시기, 욕조 목욕하기, 취침 4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기, 자외선 쬔기 등등 실생활에 적용하기 쉬운 것들을 말하며 당장 실행해 보길 권한다. 두 번째 방법은 무산소 운동 후에 유산

소 운동으로 근육 트레이닝을 한다. 체온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것인데 이 기초대사량이란 가만히 있어도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즉 체온과 기초대사량은 정비례한다. 우리 몸속에서 열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이 근육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면 체온도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국문]

이보길 (편집위원)

# 인생 2막

## 엄병윤 裕羅코포레이션 회장

·전 대한일보 ·KBS ·서울경제기자

인터뷰 : 오건환 (본보 편집위원·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사진 : 이철영 (본보 편집위원)

## 언론인 정신 바탕 매출 2兆규모 기업



끈질기게 파고드는 언론인의 프로정신과 경제기자로서 몸에 밴 기본 소양이 인생 2막의 성공비결이라고 강조하는 엄병윤 회장.

기업인으로서의 경력이 언론인으로서의 경력보다 길어져 언론인으로서의 인생 2막을 얘기하는 것에 다소 쑥스러워하는 듯 한 전화 목소리를 떠올리면서 유라코포레이션 엄병윤 회장을 판교테크노빌리지 회사로 찾았다.

엄격한 출입통제를 거치면서 속으로 의아해했더니 이유가 있었다. 깔끔하고 세련된 사옥이어서 사무실인줄만 짐작했는데 알고 보니 건물 3분의 2가 600여개의 최신 실험 장비를 갖추고 500여명의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R&D 센터로 사무실은 연구실 한 쪽을 빌려 쓰는 인상을 주었다.

엄병윤 회장의 연구개발에 쏟는 열정과 실제적인 기업경영 철학을 보여주는 일면으로 판단됐다. 회장실 입구에 전화 플러그와 전기 배선 같은 것이 전시돼 있다. 흔히 회사 경영진의 사무실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나 장식물과는 거리가 먼 이상한 전시품이었다.

### 국내외 종업원만 2만명 넘어

- 회장실 입구에 전시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인 와이어링 하네스와 점화 플러그인데 이 제품의 소재와 기능에 대한 개발이 이곳 실험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는 본래 마차와 말을 연결해주는 마구를 일컫는 말로 엔진에서 나온 에너지를 자동차의 모든 전기, 전자 장비와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 개발될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생명줄이 되는 부품입니다. 이런 주요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 사옥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옥은 R&D센터가 대부분이고 사무실 기능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회사가 나름대로 기틀을 잡고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던 것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본에 충실하고 연구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엄 회장은 사무실을 드나들 때 마다 이 전시물을 보면서 원칙에 충실하고 연구개발로 경쟁하자는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게 된다.

- 우선 현재 회사의 경영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해 우리 회사의 전체 매출액은 국내 1조 8백억 원에 해외 9천억 원 등 모두 2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 8개의 직영 공장 과 25개의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고 중국, 베트남, 튀니지, 슬로바키아 등 8개국에 모두 30개의 직영 또는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1천6백 여명, 해외에서 2만1천 여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 외형만 보더라도 성공한 기업인 대열에 들 수 있겠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이런 성공의 바탕이 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투명경영과 원칙을 지키고 연구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시간 낭비와 헛힘을 쏟으면서 얻은 결실이지만 나름 초심을 지킨 보람이기도 하지요. 아마도 언론인으로서 무슨 문제든 끈질기게 파고드는 프로정신을 길렀고 경제기자로서 닦은 소양이 이런 경영철학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생계 고민 끝에 자영업 해보기로

- 언론인에서 기업인으로의 변신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언제 언론계를 떠났고 무슨 계기로 기업인으로 변신했습니까?

“신군부의 집권계획에 따른 이른바 언론계 숙정작업에 따라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밀려나 실업자가 되면서 15년간 몸 담아왔던 언론계를 떠나게 됐지요.

80년 여름 모처럼의 휴가를 마치고 첫 출근을 했는데 해고됐다는 일방적 통고를 받고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언론계를 떠나게 됐지요. 65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한일보 견습 기자로 출발한 언론계 생활은 계속 가시밭길이어서 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사주가 구속되는 바람에 신문사가 문을 닫아 실직자가 되기도 했지요.

다행히 곧 KBS로 옮겨갔다가 그 해 11월 전공을 찾아 서울경제로 옮겨 대한일보에서부터 시작한 경제부 기사를 죽 이어갈 수 있어서 실물 경제를 접할 수 있었고 당시 추진되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른 경제 정책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

에 숙정이란 엉뚱한 찬바람을 맞고 실업자가 됐으니 그 울분은 말할 수 없었고 생활은 무질서하게 바뀌고 이런 생활이 2~3년 지속되면서 생계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지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당시 정부는 해직 언론인의 취직 길도 막아 지인이 자리를 마련해줘도 그 회사와 지인에게 피해를 줄까봐 사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곰곰 생각 끝에 취직을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을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려는 무모함도 있었지만 오랜 경제 기자로서 실물경제의 흐름을 체득했고 경제 정책과 전망도 볼 줄 안다는 속셈으로 무모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손댈 수 있고 15년 언론계 생활을 통해 친숙한 인쇄소라면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문사 재직 때 대장을 보거나 ‘게라’를 보기 위해 이따금 내려가 본 공장에서 돌아가는 윤전기를 본 것으로

인쇄를 안다고 판단하고 인쇄업에 뛰어들기로 했으니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증명한 셈이지요.

우선 경제기자를 하면서 쌓은 인맥을 통해 은행에서 융자를 얻고 자그마한 중고 인쇄기도 구입해 인쇄소를 열었습니다. 처음 인맥을 통한 일감도 꽤 많이 얻어 인쇄소는 아주 잘 뚫었습니다. 요즘 말로 대박이 나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인맥을 통한 수주는 한 두 차례에 그치고 자력으로 영업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인쇄소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윗선과의 인맥이나 지시, 비정상적 접촉을 통해서 보다는 담당 실무자와의 접촉을 통한 정상적 영업만이 지속적인 거래를 보장한다는 깨달음을 터득했고 이후 회사 경영에 원칙과 기본을 지켜 정도경영과 투명경영등 제대로 된 경영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세화인쇄는 지금까지 훌륭한 인쇄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80년 언론계 숙정으로 퇴사 ... 취직안돼 인쇄소 창업 기본 충실 연구개발로 꿈 이뤄 ... “욕심줄이고 절도

### 미국도로 질주 일본 자동차에 충격

- 인쇄업에서 어떻게 제조업 특히 거대 산업의 하나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까?

“70년대 초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도로를 질주하는 일본산 자동차에 놀랐고 자동차 산업의 발달이야말로 선진국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깊이 받았고 우리나라도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 선진국에 진입해야 한다는 다짐도 했지요.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가슴 속에 와 닿았던 순간이기도 하지요. 이때 얻은 자동차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제조업 쪽에 눈길을 돌리던 나를 사로잡았나 봅니다.

과당경쟁으로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영세 인쇄업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제조업에 손대보자는 결심을 하고 업종을 고르던 중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동차에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동차 본체의 조립 생산

# 다시 된다

## 2

### 업 운영

까지는 못 하더라도 수 만개에 이르는 부품의 한 가지라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고른 것이 접화 플러그였습니다.

당시 완성차 업체는 플러그 부품을 한 회사가 독점 수입, 조립하는 것을 납품받아 쓰고 있어 새로운 업체의 납품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플러그 메이커인 챔피온사와 끈질기게 접촉해 수입을 할 수 있었으나 완성차 업체는 접근조차 못하고 겨우 자동차 정비 업소에 공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첫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단가도 아주 낮은 플러그를 수입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접 제조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생각에 미국 챔피온사를 설득하고 접촉해서 부품과 소재를 공급 받고 로열티를 주는 조건으로 50대 50 합작투자 회사를 설립해 직접 생산에 나섰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의 회사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와 합작투자로 ‘챔피온 플러그 코리아’(현 듀라테크)를 세우고 챔피온이라는 플러그를 생산한 것입니다.

이러던 차 IMF를 맞아 구조조정에 나선 기아자동차가 플러그를 공급하던 자회사의 인수를 제의했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스레 기아차에 직접 플러그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기아차를 병합한 현대차가 부품 구매를 단일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현대차 납품이 가능해졌고 과거 양대 자동차 회사에 독점 공급권을 가졌던 미

를 걸어야 한다는 자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다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동인이 되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경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도전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 오늘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세는 회사의 공개된 경영 방침으로 종업원에게도 늘 강조하는 말이자 회사 목표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곤욕을 겪을 때가 있는데 20여년 전 플러그 부품 국산화를 위해 미국에서 중고 오프셋 인쇄기를 30억 원을 주고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 검사와과정에서 중고품이 아니라 새 인쇄기로 밝혀져 관세포탈로 입건됐으나 평소 투명경영과 성실 신고로 신뢰를 보여준 탓인지 당국은 선적 잘못을 쉽게 인정해 주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상 처리해준 일이 있었는데 평소 심어준 올바른 경영 원칙을 지킨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라사랑, 회사사랑, 인류사랑”

- 그래서 회사의 사훈이 좀 독특하군요.

“우리 회사의 사훈은 ‘나라사랑, 회사사랑, 인류사랑’이고 경영방침은 ‘아끼자, 다지자, 이루자’입니다.

나라사랑, 인류사랑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회사사랑을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고 수입을 늘려 세금을 많이 내면 그 것이 나라사랑이고 나아가 전 세계를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나 자재, 시간을 아끼고 다져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회사원 모두가 다 집하고 실천해 나가자는 경영 방침도 언론계에서 익히고 다진 생활철학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사의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업은 현재 업계선두에 있고 비록 독점적인 지위를 누린다고 해도 하루라도 경쟁에 소홀하고 기술개발과 혁신을 게을리 했다가는 곧바로 뒤쳐지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됩니다.

새로운 계획도 중요하지만 기술개발만이 생명입니다. 부품 개발은 물론 미래 자동차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고도의 IT 자동차 개발에 따른 고전압 커넥터 개발 등을 목표로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힘써야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앞서 말한 대로 전체 종업원의 3분의 1인 500여명이 연구 개발에 종사하고 있고 연구 개발 투자비도 한 해 매출액의 4~5%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로 현재 쓰고 있는 판교사옥의 대부분에 600여 가지 대규모 실험 장비를 장착해서 수 천 가지의 실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 언론인으로 쌓은 경력 자랑스러워

- 타의에 의해서이기는 하지만 언론인으로서보다는 기업인으로 우뚝 섰다고 해도

##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②

### ‘고단백 식생활’ 虛와 實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

육류나 치즈 등 동물성 고단백 식생활이 중년에겐 수명을 단축시키지만 노년은 그 반대라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 노인학과 크림민스(Eileen Crimmins) 교수팀이 미국인 6,800

명을 대상으로 지난 18년간 식습관을 추적 조사한 결과로 최근 국제학술지 ‘세포대사’(Cell Metabolism)에 게재 되었다.

연구 책임자인 크림민스 교수는 50대 중년층 사람들은 전체 열량의 20% 이상을 육류단백질을 통해 얻을 경우 사망위험이 저단백질 식사를 한 사람보다 20% 더 높았고 암과 당뇨병으로 사망할 위험도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중년에서는 비록 보통 양의 육류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도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3배나 높았다고 했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은 많이 섭취해도 사망위험은 높지 않거나 낮았다고 했다.

반면 65세 이상인 노년층은 비록 다량의 육류 단백질을 섭취해도 사망위험이 육류를 피하는 사람들에 비해 중년층과는 정반대로 28% 낮았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무려 6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미국인들 대부분은 동물성 단백질을 필요량보다 두 배나 많이 섭취하

고 있다. 그래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이 많이 나타나는 중년층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육류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크림민스 교수는 과거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단백 저당질 식사가 수명을 단축시

킨다는 결과가 같은 학회지에 실린 일이 있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중년층에선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따라서 중년의 경우 동물성 고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흡연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해로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노년층은 중년층과 정반대로 고단백 식사가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다량의 단백질 섭취가 수명을 단축하는 이유는 자연 성장호르몬과 IGF라고 불리는 세포성장요소(cellular growth factor) 등의 활성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의 활성화도와 체중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줄어든다. 따라서 노년층에서는 고단백질 식사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한 전문가는 이번 연구결과는 식사에서 열량의 섭취 원(源 : source)이 어딘가에 따라 좋고 나쁨이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4]

좋은데 여전히 언론계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인과 기업인 어느 쪽이 더 보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인으로서 15년을 지냈고 기업을 경영한 것은 30년이 됐지만 두 분야 다 내게는 의미 있는 삶의 터전이었고 당연히 언론인으로서의 나를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했지만 기자시절 해외에 처음 나갔다가 한국인으로서의 존재감마저 찾지 못했던 뼈아픈 경험이 막연한 나라사랑에 젖어들게 했고 이는 언론인으로서의 물론 기업 경영을 하면서도 늘 마음에 새겨두게 됐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나도 언론인으로서 최초의 해외여행에서의 경험이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내 삶의 바탕이 돼 왔고 계속된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은 내 삶의 기둥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오랜 경제기자 경험은 기업 경영에 큰 힘이 된 것은 물론 기업보국이란 나라사랑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돼주어 기업인으로서의 긍지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 100세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요즘 언론

인들은 정년을 다 채우더라도 50대 중반이면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하는데 일찍이 인생 2막을 꾸려 성공한 삶을 살아온 선배로서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좀 해주시죠.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한다면 여러 차례 말 했듯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무엇을 하든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도 불같은 성격 때문에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지만 화를 바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직원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함으로써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고 과욕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동력 가운데 하나가 욕심이고 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등 욕심에는 한이 없지만 그래도 욕심을 줄이고 절도 있는 생활을 한다면 낮 선 사업에서도 주변을 살피며 자제할 줄 알게 되고 나아가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장시간 고마웠습니다. [4]

## 차려 새출발 도있게 살라”

국 챔피온의 지분 50%도 인수, 유라테크를 100% 우리 회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올바른 경영원칙이 최대의 무기

- 지금은 유라코퍼레이션이 주력 기업이 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플러그는 아무리 독점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해도 원체 단가가 낮아 성장에 한계가 있고 외형도 크지 않아 다른 곳에 눈을 돌려 성장을 꾀하게 됐지요. 아시다시피 현대의 자동차는 전자제품이라고 불릴만큼 전자부품과 기능이 커지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해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 얘기를 듣다 보니 엄 회장은 당초 기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업인으로의 자질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언론인 생활 15년 동안 기르고 닦은 기자 정신과 정도



재외동포 언론인대회 참가자 기념촬영.

## 본회 주최 ‘재외동포 언론인 대회’ 대성황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제 13회 재외동포언론인대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언론인협회(회장 이종국)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대한언론인회 김은구 회장, 이종국 재외동포언론인협회 회장을 비롯, 세계 20개국 35개 지역 50여명의 재외언론인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은구 회장은 환영사에서 “재외동포언론인들이 민간외교사절로서 해외동포사회의 구심점이자 교민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이 기회를 빌어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고 말하고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국내외 미디어 간의 협력과 정보의 공유는 물론, 우리 모두가 분단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견인차로서 소명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먼 길을 온 재외동포언론인들을 환영했다.

이종국 재외동포언론인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통일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주체가 재외언론이다. 통일은 남과 북만이 아니라 700만 재외동포들이 함께하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고민과 방법을 나누고 융성하는 한민족 공영시대를 위해 머리를 맞닿 것”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명예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재외동포언론사회의 발전적인 장래에 값진 이정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국내외 언론인들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진일보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특히 류길재 통일부장관,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대사, 재



김은구 본회 회장 환영사.



이종국 회장 인사말.



김 훈 차기 회장.

## ‘통일과 재외동포 사회’ 심포지엄 개최 대구 DGIST등 방문 알찬 일정 보내

외동포재단 조규형이사장,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회장,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70여 명의 외빈들도 자리해 재외동포 언론인들의 모국방문을 축하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재외동포언론인들은 “오랜만의 모국 방문길이 문상 오는 마음으로 오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일을 하자’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 해외동포들께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각국의 젊은 교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모국의 통일 문제에 대해 잘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해외동포 커뮤니티가 통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개막식 전에는 ‘대한민국의 꿈, 통일과 재외동포사회’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려(주제발표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자 : 김 훈 유로저널 발행인, 고직순 호주한국 발행인, 배성규 조선일보 기자, 선재상 서울대 대학원생) 박근혜대통령의 통일 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등에 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 노벨상 수상자 배출 포부

22일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총장 신성철)에서 대학본부와 컨실리언스 홀, 학술정보관, 중앙기기센터 등 첨단빌딩들을 둘러본 후 국립대구과학관과 첨단의료복합단지, TBC 방송국 등을 시찰했다.

새천년 이공계 교육의 메카를 꿈꾸는 DGIST는 2004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출발, 2011년 대학원과정도 개설된데 이어 올해 처음 학부 신입생을 받아들였다. DGIST는 국내최초의 무

학과 단일학부체제 도입으로 기초과학과 공학교육을 강화하고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교육을 혁명적으로 쇠신한 대학이다. 첫 신입생 모집에서 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모은 DGIST는 모든 학비와 생활비가 무료 제공되며 학생전담교수제, 세계최초의 전자용·복합교재(E-Book)를 전면 실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2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쿠르트 뷔트리히 석좌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을 교수진으로 영입한 가운데 교육과 연구의 융·복합을 통한 지식창조형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슬산 기슭 30만평에 달하는 캠퍼스내 세종대왕과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등의 동상이 모인 ‘시간의 정원’은 2030년대까지 최초의 이공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다는 포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본회 강한필(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이사의 사위인 이기준 박사(물리

‘한 나라는 한 사람으로 흥하기도 하고 한사람으로 망하기도 한다’

이것은 저 유명한 송나라 시인 소동파(蘇東坡)의 아들 소노천(蘇老泉)의 말이다. 세상에서는, 일이 잘 안될 때, 제도를 핑계대고, 예산 타령을 하고, 인재부족을 탓한다. 그것은 대부분 사실이었지만, 일이 잘 안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우두머리에 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사실, 웬만한 자리라면 상사를 잘 만나거나 부하를 잘 만나기만 해도, 별 탈 없이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이 태평할 때의 일이다. 만약 그것이 비상한 때라면 그레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나는 이 한 사람이 지금 꼭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을 꼭 보고 싶다.

나는 명동거리에 나가기를 좋아한다. 전후좌우에 중국인들이 흥수를 이루고 있다. 환전가게 앞에는 빨간 중국 돈을 한 가방씩 들고 와, 우리 돈으로 바꿔 가는 중국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다. 중국사람 뿐 아니라, 너울을 쓰고 얼굴을 거의 가린, 이슬람교도로 보이는 외국인들, 그 밖의 무수한 외국인 남녀들이 때를 지어 지나간다. 면세점에서는 ‘Made in Korea’라고 크게 인쇄된 국산 전기밥솥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고, 화장품도 우리 국산이 동이 난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못

## 一國以一人興 以一人亡



박현대

·본회 원로회우  
·전 KBS 사장

따라잡을 것 같은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은 한국제 때문에 거둬 적자를 내다가, 이제 소니는 본사 사옥까지 매각했다.

서울 뿐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나 아파트 단지, 공장단지이다. 고속도로는 사통팔달이고 지금도 많은 새 도로건설이 추진 중이다.

누구 말마따나, 바야흐로, 전국도의 아파트 단지화, 전 지역의 공업단지화, 전 하천의 교량화, 전 산천의 관광단지화가 진행 중이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되었나? 나는 거둬 거둬 혼자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기술이 없나, 자본이 없나, 상술이 없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에게 밀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나.

그러다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이름, 그것은 ‘박정희’였다. 그는 새마을운동을 일으켜 농촌의 마을

안길을 넓혀, 농업의 기계화를 위한 터전을 만들었고, 전국의 민동산에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었으며, 포항제철을 지어, 모든 산업의 기초자재인 철강을 생산했고, 그 토대 위에 자동차와 조선공업을 일으켰다. 기술선진화의 기틀을 놓고자, KIST를 창설했고, ‘산업화는 뒤졌으나,

정보화는 앞서가자!’ 라는 구호를 외치며, 오늘날의 스마트폰 발전의 기초를 만들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것은 그가 직접 작사·작곡한 ‘새마을 노래’지만 이것은, 당시 온 국민의 절규였다. ‘하면 된다, 안 되는 것은 안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can-do spirit’. 온 국민의 마음속에 도전정신을 일깨웠다.

이러한 노선의 설정이 너무나 시의 적절하고 정당했기 때문에, 그 후의 여러 정권이 죽을 쑤었어도, 일단, 튼

튼히 깔린 궤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생존 시에는 박정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으나, 지내놓고 보니, 도저히 그의 업적의 위대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박정희’를 능가하는 ‘이 한 사람’이 나와야 한다. 정치판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갈광질광. 미주(迷走)를 거듭하고 있고, 북은 어디로 갈지, 분간하기 어려운 퇴행을 계속하고 있다.

천박한 이상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국내의 좌파들은 검찰과 법원과 각종 종교에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국익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망국적인 거조를 서슴없이 남발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망국적인 작태들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

‘도구의 결함은 장인의 자랑’이다. 좋은 연장을 가지고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가 다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진짜 명장이라면 불비한 연장을 가지고도 훌륭한 명품을 만들어낸다. 지도자는 여건의 불비를 탓할 것이 아니라, 불퇴전의 용기로 무장하여, 국민에게 다시 한번 ‘하면 된다.’는 정신을 일깨워야 한다. 국내외의 환경은, 이미 한 지도자가 나설 만큼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4]

### 14면에서 이어집니다.

학)가 싱가포르 남양과학기술대학(NTU)에서 스카우트 돼 강의를 맡고 있어 각별한 감회를 안겨준다.

### 대구과학관, 첨단의료단지도 방문

지난해 12월 개관한 대구과학관(관장 강신원)은 상설전시관이 1관과 2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과학체험을 다양한 놀이와 실험으로 즐길 수 있는 어린이관, 4D영화관, 과학마당 등을 갖추고 있다. 체험시설물이 70%를 차지하는 체험형 과학관이기도 하다.

특히 중앙홀에 있는 초대형 물시계는 대구과학관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동시에 내방객들의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물리학자이자 예술가인 버나드 지통이 제작한 물시계는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상징적으로 표현된 전시물로 주목을 받았다.

길이가 11m에 달하고 불과 밸브 등 설치물이 3.75초마다 작동되며 정확한 시간을 표시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물과 시간의 연속성, 시간의 소중함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전 세계 50개의 물시계가 있지만 대구과학관의 물시계가 세계 최대의 크기이다.

350년 역사의 약령시를 자랑하는 대구는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의료관광에 역점을 둔 메디시티(Medi City)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한국뇌연구원 등 첨단의료 R&D 산업의 허브를 꿈꾸고 있다.

최근엔 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유치, 전국 3위의 의료관광중심도시의 실적을 보이고 있

다. 이어 특성화된 주문식 교육의 산실로 잘 알려진 영진전문대의 최재영 총장이 배운 만찬에 참석,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재외언론인들은 이날 오후 수성관광호텔에서 ‘언론환경변화와 인터넷 신문현황’을 주제로 한 안병준 회우(인터넷신문 기사심의위원장)의 특강에 참여했다.

### 5대 회장에 김 훈 유로저널 발행인

재외동포언론인협회는 이날 저녁 정기총회를 열고 앞으로 2년간 협회를 이끌어갈 5대 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엔 유로저널 발행인 김훈 후보와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노재원 후보, 호주 한국일보 발행인 고직순 후보가 출마했다.

세 후보는 각각 10분간의 정견발표를 통해 개인 경력을 소개하고 재언협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포부와 공약 등을 제시했다. 총 38명의 유호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열한 접전을 펼친 결선투표에서 김훈 후보가 20표를 얻어 노재원 후보(17표)를 3표차(1표 무효)로 제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국내이사진 구성, 소모임 활성화, 국내외 기자와의 교류 등의 공약을 내세운 김훈 후보는 당선소감에서 “훌륭한 두 후보와 힘을 합쳐 동포언론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사 사흘째인 23일엔 고양시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고 24일에는 분단의 현장 도라산 전방대를 시찰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국회에서 김성곤 의원 등과 함께 본회 이성춘 회우도 토론자로 참가한 ‘재외동포언론지원법 통과 의의와 실행방안’에 관한 간

담회를 갖고, 오후엔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저녁 만찬 겸 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끝으로 이번 대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김은구 회장은 이날 저녁 재외동포언론인협회 신규회장단 10여명을 시내 한 음식점으로 초대,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시종일관 수고해 준 재외동포언론인대회 조직위원장 박기병 본회 상임이사과 재외동포언론인협회 이천구 상임이사와 여익환 사무총장의 역할이 눈부셨음을 밝혀 둔다.

### 대회참석 해외언론인명단

〈가나다순〉

강은실(밴쿠버 한국일보 발행인) 강의현(몽골 울란바트로 브레이크뉴스 강원평창몽골특과원) 고직순(호주 한국일보 발행인) 권현기(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 훈(런던 유로저널 발행인) 김경식(북경 중국민족출판사 총괄편집국장) 김길수(텍사스 YTN 댈러스코리아라디오보도국장) 김콘스탄진(알마타 고려일보 총주필) 김상욱(알마타 한인일보 발행인) 김성일(파라과이 기독교한인방송 대표) 김소영(밴쿠버 중앙일보 발행인) 김완신(LA 중앙일보 논설실장) 김원일(모스크바 뉴스플러스 발행인) 김진우(팔라툼푸르 헬로 말레이시아 대표) 남정호(뮌헨 시사IN 유로저널 편집고문) 노재원(시카고 중앙일보편집국장)노창현(뉴욕 NEWSROH) 류강훈(YTNRADIO USA 보도본부장) 문용준(밴쿠버 조선일보 기자) 박정모(북경 중국중앙인민방송국조선어부 기

자) 박종권(모스크바 겨레일보 대표) 박철승(텍사스 미주일요서울 부사장) 배순신(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대표) 배영훈(미얀마 모닝미얀마 대표) 송광호(토론토한국인 편집위원) 양성원(시카고중앙일보 사장) 양희종(뉴질랜드 Megatal 이사) 유재원(라디오워싱턴) 윤태희(심양 중국요녕신문 사무국장)

이석수(파리 프랑스존 대표) 이윤신(호주 한국신문 발행인) 이종국(워싱턴 한국일보) 임광수(남미 동아일보 대표) 장익진(마닐라 코리아포스트 대표) 전승인(YTNWORD기자) 전영민(자카르타 일요신문 인도네시아 편집실장) 정지대(캄보디아뉴스브리핑 캄보디아 대표) 최성자(굿데이 뉴질랜드 편집국장) 최영현(함부르크 우리신문) 최윤주(텍사스 뉴스코리아 부사장) 허룡호(홍콩 강성 조선어 방송국 사장) BARBAJOSE(마닐라 코리아 포스트국장) [4]

글·정운종 상임이사  
사진·이철영 편집위원

### 후원, 협찬에 감사드립니다.

후원: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언론중재위원회, 고양시, 대구광역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보건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협찬: 삼성, CJ(주), 한국SGI, 농협중앙회, TBC(대구방송)

진 카파의 ‘음식 — 당신의 기적의 약’과 ‘기적의 치유’ 두권의 저서에는 먹거리에 의해서 질병을 고치는 방법이 망라되어 있다. 질병에 시달리는 체질을 바꾸는 방법은 잘못된 식습관의 개선이 유일한 방법임을 실증적으로 들고 있다. 전부 다 옮기는 일은 분량상 불가능하므로 빈도가 잦은 질병위주로 간추릴 수밖에 없다.

#### 고혈압의 식사(DIET)요법

혈압을 내리는 식품으로는 셀러리, 마늘, 청어, 과일, 야채, 올리브기름, 고(高)칼슘식품, 고 칼륨식품 — 혈압을 올리는 식품은 알콜과 고 나트륨(짠 음식).

혈압은 심장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근거다. 많은 연구결과 식품에는 혈압을 올리거나 내리게 하는 성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원전 200년 켈로부터 아시아 문명에서는 혈압을 내리기 위하여 셀러리를 써왔다고 시카고 대학의 약리학자 엘리오프 박사는 말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의 베트남인 대학원생의 62세 난 아버지가 매일 셀러리 두 줄기(莖)를 1주일동안 먹고는 158-96이었던 혈압이 118-82로 내려갔다는 증언에 주목한 엘리오프 박사는 셀러리에서 혈압을 내리는 화합물을 추출해서 실험쥐에 먹인 결과 수축기 혈압(최고혈압)이 평균12~14% 내려 갔다고 한다. 쥐에게 투여한 화합물은 셀러리 4줄기에 상당하는데 콜레스테롤도 7포인트 - 약 14%가 내려갔다는 것이다. 셀러리에서 추출한 화합물은 혈관을 수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혈중농도를 저하시킴으로써 혈압을 내리게 하므로 스트레스가 관련된 고혈압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마늘복용은 고혈압에 대한 전설적인 민간요법이다. 독일에서는 크와이(KWAI)라는 마늘 제제(製劑)를 사용한 실험에서 하루 두쪽을 먹는 양에 상당한 투여 양으로 평균 혈압이 3개월뒤 171-102에서 152-89로 내려갔다고 한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연구자들은 마늘과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 ‘아데노신’ 이 평활근(平滑筋)의 긴장을 부드럽게 하는 이완(弛緩)약이라는 것이다. 마늘이나 양파는 날것이든 익힌 것이든 혈압을 내리게 하지만 날 마늘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혈압을 내리는 데는 청어와 고등어 등 푸른 생선이 강압제(降壓劑) 구실을 한다는데 “고등어 통조림을 매일 먹었더니 혈압이 140-90에서 100-70으로 내려갔다”고 말한 이는 베를린 대학의 베타 징거박사다. 생선이 혈압을 내리게 하는 것은 주로 오메가3 지방산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징거 박사는 강압제로서 통상적으로 처방되는 베타차단제와 같은 효력이 약간의 생선기름으로 얻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고 한다.

혈압을 내리는데는 생선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될까?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에서의 실험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을 매일 200밀리그램, 3개월 복용한 결과 가벼운 고혈압 환자의 확장기 혈압(최저혈압)이 44포인트, 수축기 혈압(최고혈압)이 6.5포인트 내려갔다

고 한다. 그 양은 마른멸치 35그램, 연어알 38그램, 고등어 52그램에 상당하는데 그 정도 혈압이 내려간다면 혈압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사람이 꽤 많아 질것이라는 추론(推論)이 가능하다고 한다. 덴마크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혈압을 내리고자 한다면 1주일에 최저 세 번은 생선을 먹어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1주일에 세 번이상 생선을 먹게 해도 그 이상은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학부 프랑크 · M·삭스박사는 과일과 야채의 성분에는 혈압을 내리게 하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권도홍

·본회 회장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각각 9일동안 먹게 한결과 칼륨을 줄인 피험자(被驗者)의 확장기 혈압은 평균 4.1 포인트. 그러니까 90.9포인트가 95포인트로 치솟은 것이다. 식사에 칼륨이 보태지면 혈압은 내려가고 제외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압약(강압제)을 줄일수가 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대학에서 혈압약을 복용하는 고혈압 환자에게 고(高)칼륨식(食)을 먹게 했더니 1년뒤에 81%의 환자가 혈압약의 복용량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었고 계속 그 식사를 먹은 38%의 환자는 혈압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한다. 칼륨이 풍

##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8>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 진 카파의 먹거리에 의한 기적의 치유 (中)

### 불치병이라는 고혈압도 고칠 수 있다

그 강압(降壓)에 작용하는 약성의 하나는 식물섬유, 특히 과일의 식물섬유라는 것이다. 중·고(中·高)년의 남성 31,000명을 대상으로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로는 하루에 사과 다섯 개에 상당한 식물섬유를 섭취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과일을 아주 조금만 먹는 사람은 4년이내에 46% 더 많이 고혈압증이 된다는 것이다.

피 속의 비타민C 수치가 올라가면 혈압이 내려간다. 과일과 야채의 비타민C는 강력한 고혈압 예방약이라는게 고혈압치료의 권위인 런던 하마스미스 병원의 크리스토퍼·J·바르피트 박사의 주장이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비타민C의 섭취가 부족한 사람에게 고혈압과 뇌졸중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일련의 증거가 나타낸다는 것이다. 타프트대학의 미국 농무성 인간영양 리서치 센터의 폴·F·자크박사는 피속의 비타민C 저농도는 수축기 혈압을 16%, 확장기 혈압을 9% 높이는 것으로 결론 짓는다. 최저 하루에 감귤류(오렌지, 귤 따위)1개는 먹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자크박사에 의하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에는 비타민C 이외에도 혈압의 상승을 억제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과일과 야채와 어개(魚介·생선과 조개류)류에 농축되어 있는 칼륨은 고혈압 약과 같다. 칼륨은 인체에서 소금기(나트륨)를 배출하는 성분이다. 10명의 정상 혈압의 남자에게 칼륨이 적당한 식사와 칼륨을 제한한 식사를

부한 식품은 청어, 감자, 아보카도, 말린살구, 마른멸치, 콩, 말린무화과, 토마토, 청국장, 참치, 삼치, 오렌지, 고구마, 시금치 따위다.

고혈압에 대한 또 하나의 비밀병기는 고(高)칼슘식품이다. 혈압에 대한 권위자들은 소금기(나트륨)의 과잉섭취보다는 칼슘의 부족이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나트륨을 과잉섭취 하면 몸속에 수분이 저수(貯水)됨으로써 혈압이 올라가는데 칼슘이 충분할 경우 이뇨제(利尿劑)의 작용을 하여 콩팥(신장)이 나트륨과 물을 배설하는 것을 돕게 된다는 것이다. 40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충분히 칼슘을 섭취한 사람들은 고혈압이 되는 율이 낮고, 비만체가 아닌 사람으로 술을 하루 한잔 이상 마시지 않는 사람의 경우 하루 1,000밀리그램의 칼슘 섭취가 고혈압증이 되는 율을 20% 내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40%나 고혈압 리스크를 줄이게 된다고 한다.

음식을 장만할 때 올리브기름을 쓰면 혈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76명의 고혈압인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 의학부의 연구로는 하루 큰 술갈로 3술갈의 올리브 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최저혈압을 6포인트, 최고 혈압을 약9포인트 내렸다고 한다. 켄터키 대학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큰 술갈로 2/3의 올리브기름을 매일 섭취함으로써 최고 혈압이 5포인트, 최저혈압이 4포인트 내려갔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

에선 올리브기름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정상혈압인 사람까지도 약간이지만 혈압이 내려갔다고 한다.

소금기가 혈압을 높이는 주요원인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소금을 제한해도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다. 알버트·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버나드·란포트 박사에 의하면 소수이긴 하지만 소금기를 줄이면 되레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의사의 지시대로 염분을 제한한 가벼운 고혈압증 환자 20~25%의 사람들이 현저하게 혈압이 내려갔지만 15%의 사람들은 되레 혈압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고 한다. 그러므로 의사의 지시대로 염분을 줄여보되 혈압이 내려가면 그대로 계속하고 만약 혈압이 올라가면 감염(減塩)을 스톱해야 된다는 것이다. 미국 국립위생연구소는 모든 사람은 하루 6그램 이상의 나트륨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나트륨 6그램은 작은 술갈(티스푼)로 3술갈의 분량이다.

카페인은 만성적인 고혈압의 중요한 용의자가 아닌 모양이다. 카페인은 더러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인다. 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혈압도,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혈압을 높이지만 혈압에 대한 카페인의 영향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며 고혈압증 환자의 수명을 줄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텍사스 대학 건강과학센터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고혈압으로 진단된 10,064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동센터의 연구로는 홍차나 커피를 잘 마시는 사람의 심장병이나 기타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카페인이 겹쳐지면 혈압은 뛰어 오르게 된다고 한다.

압도적 다수의 연구가 일관해서 알콜이 혈압을 높이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1992년 호주의 로열·파스병원의 임상자들은 어떤 민족이나 연령의 남녀 혈압이 맥주·포도주·증류주를 포함한 모든 알콜음료에 의해 상승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래서 알콜은 나트륨 이상으로 혈압에 위협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루에 석잔 이상의 음주는 고혈압의 일반적인 원인이 된다는게 그들의 결론이다.

고혈압을 고치는 식사의 포인트 — 과일과 야채를 더 많이 먹으라 —

과일과 야채에는 비타민C, 칼륨, 칼슘을 비롯하여 기지(既知)의 물질과 미지(未知)의 물질까지 혈압을 내리게 하는 모든 종류의 물질이 넉넉하게 들어 있다. 특히 마늘과 셀러리를 더 많이 섭취 할것. 생선을 의식해서 더 섭취하되 특히 오메가3를 많이 지닌 청어가 좋다. 나트륨을 줄이게 좋다. 나트륨의 70%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다. 알콜 섭취량을 줄이고 비만이라면 체중을 적정선으로 줄여야 한다. 과체중을 줄이는 것은 고혈압을 고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나의 치병기(治病記)’에 자세하게 쓰겠지만 고혈압은 고칠수 있다. 한번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끊을수 없다는게 정설(定設)로 되어 있지만 나의 경우 그것은 허설(虛說)이다.

# 상상의 날개 펴고 창의력을 키워라

## NIE 특강 현장리포트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한민고등학교에서 '창조적 글쓰기' 특강을 하고 있는 필자.

‘ 쌤(선생님), 이거 쓰느라 ㅎㅎㅎ(후덜덜)했어. ㅈㅈ(죄송)’

행성에서 온 외계인의 횡설수설이 아니다. 대학생이 제출한 기말고사 보고서 문장이다. 담당 교수는 ‘ㄷㅈ(닥쳐)’라고 써서 돌려줬다고 한다. 청소년층이 즐겨 쓰던 ‘문자단순화’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전 세대로 확산되는 추세다. 대학생이 이런 수준이니 초중고생에게 제대로 된 문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안중근 의사(義士)’를 의사(醫師)로 알고 “그분은 어느 과목을 진료하셨느냐”고 물었다. 교수가 “베이징에 출장 간다”고 하자 “북경(北京)은 안 가느냐”고 묻는 대학생도 있었다. 한글표기 ‘동음이의어’의 뜻을 이해 못하고 ‘한자 문맹’의 서글픈 현상으로 신문에 난 사례다. 의미의 혼란을 넘어 어휘체계가 무너진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글쓰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많이 읽고, 많이 써 보고, 많이 생각해야 글쓰기가 늘기 마련인데 독서도 리포트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읽는다니 글쓰기가 늘 턱이 없다.

### 높이 맞춘 교안과 PPT는 기본

글쓰기는 어렵다. 공감 주는 맛있는 글을 쓴다는 게 쉽지 않다. 글쓰기보다 어려운 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일이다. 중등학교에 작문교사가 드문 것도 글쓰기 지도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작문과목을 개설하여 국어교사에게 맡아 달라고 하면 손사래를 친다는 게 현실이다.

글쓰기 강의에 앞서 교육목표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안과 PPT준비는 기본이다. 흥미유발용 동영상은 시선 끌기에 좋다. 사례를 많이 제시하고 과제를 첨삭을 통해 글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화려한 경험담은 맛보기에 그쳐야 한다.

신문동아리 등 방과 후 수업시간을 활용한 글쓰기 특강은 그런대로 아이들이 집중한다. 정규 수업시간은 대부분 분위기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옆드려 자거나 옆자리 친구와 떠드는 건 예사다. 교사가 훈계해도 ‘인권 침해’라며 막무가내로 대드는 아이들에게 외부 강사가 집중력을 높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 ‘현대판 유목민’ 군인자녀 기숙고교

한국언론진흥재단 NIE특임강사 4년 차. 지난 3월 개교한 경기도 파주 한민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창의적 글쓰기’ 특강을 진행했다. 배정을 받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직업군인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사립고교다. “올바른 국가관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건학이념으로 ‘한민’고 명칭도 ‘대한민국’의 중간 두 글자를 따서 지었다. 군인자녀 교육기관으로 1970년 서울 중경고등학교와 춘천제일고등학교가 설립됐으나, 중경고는 일반고로, 춘천제일고는 1982년 강원사대부고로 전환된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천왕성 담당 선생님에게 전화하여 아이들의 학력수준을 파악했다. “내신 200점 만점에 190점 이상 받은 학생들

로 성적이 우수하다”고 한다.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교안 작성의 전제조건이다. 중3과 고1은 대개 엇비슷하게 교안의 눈높이를 맞추지만 한민고는 예상대로 달랐다.

학생들의 표정은 해맑고 푸르다. 초롱초롱한 눈동자는 신록을 닮았다. 복도에서 만날 때 마다 깎듯이 인사한다. 품성 곱고 예절 바르다. 집중력이 빼어나 50분이 짧게 느껴졌다. 강의 자료를 복사해 달라는 학생도 있고, 첨삭지도 받겠다며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는 학생 등 적극적이다.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 문장쓰기의 일반적 유의점은 무엇인지, 신문을 활용한 논술 준비 등은 PPT로 개념만 간략하게 소개한 뒤 유인물로 대체하고 ‘고기 잡는 법’에 강의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암기형에서 사고(思考)형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실시한 대기업의 입사 시험 문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종합적인 사고를 가진 창의적 인재를 요구한다.

‘세종대왕과 외계인이 만났다면 어떤 대화를 할지 서술하라’는 명문대의 창의에세이 문항도 독특한 시각의 상상력을 요구한다. 상상력과 달리 창의력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창의성을 마케팅에 활용하여 대박을 낸 사례와 역발상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심청전’의 주제는 호이지만, ‘심봉사과 마을주민이 공모한 심청살인사건’(이정원 ‘傳을 범하다’)이라고 규정한 교수의 저술을 소개하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관심을 드러낸다.

수업활동지로 칼럼을 읽고, 근거와 내용 요약, 나의 중심생각을 발표하게 했더니 비판적 생각이 의외로 많아 놀랐다. 칼럼 사례도 저명인사 보다 강사가 현직 때 ‘발로 쓴 칼럼’과 최근 여행 칼럼을 소개하니 근접성 때문인지 ‘와~우’하며 반긴다.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운다. “2주라는 시간이 아쉽습니다. 아이들도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라는 담당 선생님과 “좋은 강의와 자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학생의 메일을 받으니 어깨가 으쓱해진다.

### 인성·진로교육등 강의 영역 넓혀야

문필가나 기자가 아니더라도 글쓰기는 평생 과제다. 자소서, 리포트, 논문, 직장의 보고서와 기획안도 문장력이 탄탄하면 돋보이게 마련이다. 음식점 홍보 전단지도 감칠 맛나게 쓰면 구미가

당긴다. 글은 미사여구 보다 문장은 짧게, 진솔하게 써야 감동을 준다. 잘 쓰려고 하기보다 잘못 된 습관만 고쳐도 좋아진다. 글쓰기 과제도 중요하지만 퇴직 언론인의 경륜을 활용한 인성교육과 진로교육 등 범위를 넓혀 갈 것을 제안한다.

### ●잠깐 한 말씀

김태영 한민학원 초대 이사장



### “학교신문 통해 글쓰기 기회 제공”

한민학원 초대 이사장인 김태영 전 국방장관(사진)은 결혼 35년 동안 29번 이사를 했기에 군인자녀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학교설립은 법령에 의해 국방부의 뒷받침이 있었지만 운영은 그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재정적 뒷받침 계획을 물었다. “최근 발족한 사단법인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을 통해 운영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동참하는 분들이 늘어나 고무적이라”고 한다.

평소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김 이사장은 “한글과 영어로 된 학교신문을 주기적으로 발행해 학생들에게 글쓰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군·관계를 거친 뒤 교육자로 변신한 그는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솔선수범 할 때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된다.”며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 ●저도 한 마디

한민고 1학년 강진솔 양



### “안정감 찾아 공부하기 좋아요”

“공군인 아버지를 따라 17년 동안 13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전학이 잦아 친구들을 사귀고 적응하는데 무척 힘들었어요.” 한민고 1학년 강진솔 양(사진)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찾아 공부하기 좋다”며 환하게 웃는다.

“드라마 프로듀서가 꿈”이라는 진솔 양은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자극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 넣어 달라”고 주문한다. “한민고 1회 입학생으로 저희들이 잘 해야 학교가 명문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에 어깨가 무겁다”며 어른스럽게 말한다.

☞

## 한국전 순직 종군기자 추도식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통일공원 내 한국전순직종군기자 추념비 앞에서 한국전당시 전장을 누비며 종군기자의 소임을 다하다 순직한 국내외 종군기자들을 추모하는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대한언론인회 김은구 회장, 제재형 고문 등 임원진 다수와 6·25 참전 언론인회 박기병 회장, 지갑종고문, 한영섭 감사, 황대연 부회장을 비롯한 6·25참전언론인 다수가 참석했다. ☞



수로부인(水路夫人)은 신라 성덕왕(聖德王) 때 귀족 순정공(純貞公)의 아내였다. 순정공이 아내를 데리고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도중 동해 바닷가에서 잠깐 쉬며 점심을 먹었다. 바닷가에는 돌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는데, 때는 봄이라 까마득한 절벽 위에는 진달래꽃이 만발하여 꽃밭을 이루고 있었다. 수로부인이 꽃무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쳐다보며 탄성을 연 발했다.

“아유, 저 꽃들 좀 보이소! 참말로 이쁘지 않느뇨? 아이고, 누가 저 꽃들 좀 꺾어다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러나 남편을 비롯하여 일행 중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노? 내 말이 말 같지 않드나? 흥!”

수로부인이 입술을 내밀고 뽀로통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였다. 일행의 곁으로 새끼 뱀 암소를 몰고 가던 한 시골 노인이 발길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오. 내가 한 번 올라가 보지요. 그런데 잠깐! 산에 올라가기 전에 절세미인인 부인을 위해 노래 한 곡부터 바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분 좋게 웃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노래 한 곡을 즉석에서 불러젼하는데 명창은 아니지만 수로부인이 듣기에 매우 흥겨웠다.

- 자쫓빛 바위 끝에 / 잡고 있는  
어미 소 놓게 하시고 / 나를 아니 부  
끄러워하신다면 / 꽃을 꺾어 바치오  
리다. -

이것이 <삼국유사>에 실려 전해오는 14수의 향가 가운데 한 곡인 유명한 ‘헌화가(獻花歌)’이다. 노인의 노래를 들은 수로부인의 두 뺨이 발그레 물들었다. 남편한테서도 이렇게 멋진 구애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능청스러운 시골 노인은 그리고 나서 수행원들에게 암소를 맡겨놓고 절벽을 다람쥐처럼 능숙하게 기어 올라가더니 얼마 안 가 진달래꽃 한 다발을 꺾어가지고 내려와 수로부인에게 바쳤다. 꽃다발을 한 아름 받아든 수로부인의 예쁜 입이 짝 벌어지고 두 뺨은 한결 더 붉게 물들었다.

“오호호호! 고맙습니다, 노인장! 연세도 많이 자신 분이 산을 참 잘 타시네!”

“오호호호, 뭘 이간 일쯤이야!”

일연선사(一然禪師)는 이렇게 ‘헌화가’의 사연을 전해주고 나서,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수로부인 부부도 모르고 수행원들도 모르는 이 견우노옹(牽牛老翁)의 정체는 무엇이였을까. 서라벌 같은 도시 출신 사람들은 도저히 기어오를 수 없는 까마득한 절벽을 잘도 타고 오르는 실력으로 볼 때 그곳 지형지세를 자신의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는 그 부근 시골 농부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골 촌로가 어떻게 향찰(鄕札)을 배워 그처럼 격조 높은 노래를 즉석에서 지어 부를 수 있었을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다. 이런 사연이 그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지다가 어느 유식한 사람이 그 이야

## 溫故知新

### 水路夫人과 ‘獻花歌’

기를 듣고 향가를 만들었다고 해석하면 될 게 아닌가.

순정공과 수로부인 일행은 다시 동해를 오른쪽으로 끼고 북녘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틀을 더 올라간 다음이었다. 바닷가에 누가 지은 것인지 근사한 정자 한 채가 서 있었다. 또 점심때가 되었으므로 그 정자에서 점심을 먹고 쉬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해룡(海龍)이 나타나더니 수로부인을 낚아채서 바다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다. 삼시간에 아내를 빼앗긴 순정공이 망연자실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렇게 당황하여 발만 구르고 있는데 난데없이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이런 계책을 일러주는 것이었다.

“너무 걱정할 것 없소이다. 아, 옛날 사람들 말에 못사람이 씌어대면 쇠라도 녹인다 했는데 그간 놈의 바다집승이 어찌 못사람의 입을 두려워

하지 않겠소이까? 이곳 백성들을 모아서 노래를 지어 소리쳐 부르고, 몽둥이로 언덕을 마구 두드리면 부인을 다시 볼 수 있지 않겠소이까? 으흐흐흐...”

웃는 소리가 좀 이상한 노인이었지만 순정공은 그 말을 듣자 부하들을 이끌고 인근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

고는 괴노인이 일러준 대로 몽둥이로 언덕을 치며 ‘바다노래(海歌)’를 지어 불렀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랬다.

- 거북아 거북아, 수로부인을 내놓아라. / 남의 여편네 훔쳐간 그 죄 얼마나 큰지 아느냐. / 네가 만일 말을 듣지 않고 내놓지 않는다면 /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고 말겠다! -

이거 어디서 많이 들던 노래 같지 않은가. 그렇다! 까마득한 옛날 옛적 김해 구지봉에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金首露王)이 탄강할 때 아홉 칸(干)과 수백 명의 원주민, 고조선 유민이

대왕을 마중하며 불렀던 바로 그 노래와 판박이인 것이다. 게다가 가락국 시조 이름도 수로부인을 연상시키는 김수로가 아닌가. 그렇게 한바탕 난리법석을 피우자 수로부인을 잡아갔던 그 용이 수로부인을 데리고 바다에서 나와 순정공에게 돌려주었다. 순정공이 바다 속으로 끌려갔던 일을 물으니 부인이 대답했다.

“오호호호! 바다 속으로 들어갔더니 말입니다. 칠보로 장식한 궁전에 말이지요. 용왕이 대접하는 음식들이 마카(모두) 달고 연하고 향기가 폴폴 풍기는데, 와! 참말로 인간세상의 음식은 아닌기라예!”

순정공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쳤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곳을 떠나 내한테 돌아온 기 못마땅하다 그 말이가?”

그러자 수로부인이 금세 입술을 뽀족 내밀며 토라져버렸다.

“흥! 누가 그렇다고 했나? 와 이리 내한테 화를 내노? 거기 뭐 내 잘못이까? 잡혀갈 땐 아무 소리도 못 해놓고 말이데이!”

“에헤이, 내사 그저 쪽이 팔려서 그런 기지 뭐!”

수로부인의 역공에 순정공이 불리하기에 우물쭈물 꼬리를 내렸다. 그랬다! 바다에서 튀어나온 용이든, 괴물이든, 아니면 해적 두목에게든, 마누라를 빼앗겼던 못난 놈이 무슨 염치로 마누라에게 화를 낼 수 있겠는가. 일연선사는 이 대목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수로부인이 절세미인이었으므로 그 뒤에도 깊은 산이나 큰물을 지날 때마다 여러 차례 귀신이나 영물(靈物)들에게 붙잡혀갔었다’고.

그랬다! 의문의 열쇠는 수로부인의 그지없이 빼어난 미모에 있었다. 그토록 아리따웠으므로 소 몰고 가던 다 늙은 시골노인도 그녀의 남편이 보고 듣는 앞에서 사랑 노래를 읊으며 목숨을 걸고 절벽 위에 기어 올라가 꽃을 꺾어 바쳤고, 바닷가를 지날 때에는 해적 두목이, 험한 산마루를 넘을 때에는 산적 두목이 잡아다가 재미를 보고는 풀어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인박명(佳人薄命)이니 뭐니 하는 소리도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신라 제일의 미녀 수로부인의 팔자는 그리 사납지는 않았던 듯하다. 남편에게 쫓겨났다는 기록은 없지 않은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신라시대에 ‘부인’이란 칭호는 아무 여자에게나 마구 붙여준 흔해빠진 것이 아니었다. 왕비나 후궁, 왕의 친인척 가운데서 지체 높은 여인에게 붙인 존칭이었다. 따라서 수로부인의 출신성분이 진골(眞骨)로 추정된다.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수로부인 설화의 역사적 현장이 삼척해수욕장 북쪽 와우산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그곳은 군사보호시설지구로서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인근의 경관이 수려한 증산동 해변에 임해정(臨海亭)과 해가사비(海歌詞碑)를 세우는 등 수로부인공원을 조성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국문]

#### 항원갑

- 본회 전문위원
-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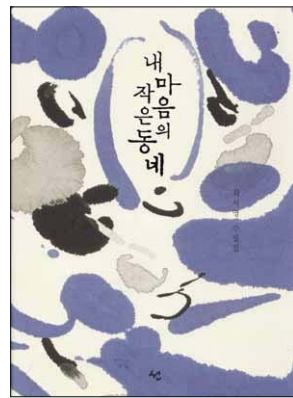


## 회우들이 떠낸 신간

### 최서영 회우 수필집 ‘내 마음의...’

최서영 원로회우(전 코리아 헤럴드·내외 경제신문 사장)가 젊을 때부터의 메모를 정리해 수필집 ‘내 마음의 작은 동네’를 펴냈다.

최 회우는 글을 읽을 때 꼭 기억 해두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그것을 메모해 간직해 온 것과, 글을 읽고 불현듯 떠오르는 영감이나 감상을 단상(斷想)으로 써놓은 것, 또 유적지를 여행했을 때 그곳의 사적(史蹟)과 그때의 느낌 등을 적어 놓은 것을 정리해 이 책을 펴내었다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내 머리 속에 형성되었던 지식 공간, 나만의 세계였던 내 마음의 작은 동네 모습을 다듬어 본 셈이다. 여기 수필집이라는 이름으로 내놓게 된 이 책은 바로 그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버리기 아까워 써 본 글들이다.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써 본 것도 있고, 요즈음 세대에 대한 비판조의 글도 있다. 내 주변의 친구 이야기도 있고 추억담도 있다. 고향과 관계되는 글도 있고 여행을 다닌 기행문도 있다. 수필집이나



산문집이라기보다 잡문집(雜文集)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최 회우는 그러면서 자신이 가을비를 유난히 좋아해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이 대부분 작년 늦가을에 쓴 글들임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고향’ ‘제2의 인생’ ‘언론인의 저서’ ‘역사왜곡 이모저모’ ‘공자기행’ ‘작은 불씨 큰 사건’ 등 모두 18편의 글이 실려 있다. [국문]

<도서출판 선 발행·국판287쪽·값 15,000원>

8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  
2006년~2013년 디스플레이서치 기준  
세계TV 점유율 1위

곡선으로 인해  
디테일은 경이로워지고, 입체감은 완벽에 가까워지고  
디자인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며, 컬러는 더 강렬해질 것이다

## 곡면화질이 만든 압도적 몰입감 세계 최초 커브드 UHD TV



홍명보

삼성 커브드 UHD TV 모델 홍명보



모델명 : UN65HU9000F  
해당 모델은 미출시 제품으로 예·시·보·유·동·금·미·확·정·하·니·다

# 삼성 UHD TV Curved

Ultra High Definition 4K

실제와 같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커브드 스크린  
일반 영상도 UHD급 화질로 표현하는 UHD 업스케일링

생생한 입체감을 더해주는 원근 강화 엔진  
자연에 가까운 리얼 컬러를 재현하는 퓨어 컬러

삼성전자 SAMSUNG

# 중남미 8개국 ‘불만한 곳’을 둘러보다

중남미를 여행할 때 스페인어 올라(Hola)와 무차스 그라시아스(Muchas gracias)정도는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도의 인사다. 남미 사람들은 순진하고 친절했다.

## ‘헤밍웨이’ 집필실을 가다

쿠바하면 먼저 ‘노인과 바다’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헤밍웨이가 5년 동안 작품을 집필했다는 이름 하여 ‘헤밍웨이 빌딩’이 쿠바시내 하바나 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 빌딩은 5층 분홍빛 벽돌집으로 깔끔하게 단장 돼 있었다. 그가 작품을 집필한 5층 바다가 보이는 모퉁이 구석진 방, 511호는 헤밍웨이가 글을 쓰던 도구가 그대로 전시 돼 있다.

밑에 층은 도서관으로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태양은 다시 뜬다’ 등 그가 쓴 책들로 가득 차 있다. 나머지 층은 사무실 또는 호텔(여관)로 빌딩을 운영하는 것 같았다. 1층 안내실은 헤밍웨이가 작품을 쓸 때의 과정들이 사진으로 준비하게 벽에 붙어있다. 헤밍웨이는 낚시도 좋아 했는가보다. 낚시 장비는 물론 사냥도 좋아해서 인지 짐승들의 머리들도 가끔 걸려 있다.

특히 노인과 바다의 주제인 청새치 사진도 헤밍웨이의 사진과 함께 걸려 있어 눈길을 끌었다. 구경을 마친 우리는 바로 옆 건물에 헤밍웨이가 자주 들렀다는 식당에서 점심을 했다. 식당 벽에는 어지럽게 낙서들로 가득 차 있어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식사 중에는 어느새 악사들이 나타나 연론인이며 혁명가인 ‘호세마르티’의 시, 관타나메라(Guantanamera)의 쿠바 민속노래를 연주하며 CD를 판매한다. 시내 혁명광장과 존엄광장 등을 돌아보기 위해 식당 문을 나섰다. 혁명광장에는 독립을 위해 싸운 ‘체 게바라’와 ‘카스트로’의 대형 사진이 내부부 건물에 걸려 있었고 호세마르티의 동상이 거대 혁명 탑과 함께 세워져 있었다.

쿠바의 수도 하바나는 미국 군정 때 건설한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폐허 같은 도시다. 마치 유령의 도시 같다. 건물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서 인지 바로크양식의 건물이 고풍스러웠으나 색깔은 바래서 보기가 흉물스러웠다. 건물이 무너져 방치 된 곳도 더러 있었다. 특히 광장에서 눈에 많이 띄는 점은 걸인들이다.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 눈이 없는 사람,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워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발길을 떼는 사람, 어린이서부터 남루한 아낙네까지 동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가하면 한쪽에서는 곱게 화장을 하고 ‘꽃을 파는 아가씨’들도 있었다. 이들은 오가는 관광객들을 붙들고 사진을 찍고 불에다 입맞춤을 하며 돈을 요구하는 풍경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 페루, ‘잉카제국 꽃을 피우다’

여행 8개국 중 페루를 빼 놓을 수 없

김휴선 (본회 회우·전 MBC부국장)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집필실 앞에 선 필자부부.



잉카의 꽃 마추픽추 정상에서.

다. 페루는 볼거리가 많은 나라중 하나다. 마추픽추(Machu Picchu)를 비롯해 쿠스코의 석사이와만 유적지, 경비행기를 타고 구경하는 나스카 라인, 물개 섬 등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마추픽추를 가는 날은 흐렸다 비가 오고 있었다. 마추픽추는 우루밤바에서 1시간 넘게 협곡열차를 타고 ‘아구아스 칼리엔테스’역까지 간다. 차창으로 보이는 협곡에는 성년 황톳물이 넘실거린다. 금방 비가 와서 그런 모양이다. 역에서 내려 점심을 하고 셔틀버스로 마추픽추 입구에 도착했다. 걸어서 30여분을 더 갔을까, 정상(the Sun Gate)에 다다랐다.

정상에서 본 마추픽추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누가 그랬던가, 잃어버린 도시(Lost City)라고... 해발 2400m에 도시를 형성했다는 것은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쳤다. 마치 목욕을 한 후 처럼 온 천지가 개운했다. 아주 운이 좋은 날이다. 보통은 흐린 날이 많거나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마추픽추는 미국의 고고학자 하이람 빙엄(Hiram Bingham)교수가 우연히 등산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지금까지 알려

지고 있다. 마추픽추는 산꼭대기에 자그마한 도시를 형성했다. 왕이 기거하는 신전을 비롯해서 태양의 불, 콘돌의 신전과 감옥 등 높은 곳 까지 물을 끌어 올려 농사를 짓는 농경지.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도시다.

## 월드컵 결승전 ‘마라카나’ 경기장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하룻밤을 묵고 월드컵 축구 결승전과 폐막식이 열린다는 ‘마라카나(Maracana)’경기장을 구경했다. 8만 7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경기장은 지금 단장이 한창이다. 안에는 못 들어가고 주위 입구에서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구경은 할 수 있었다. 펠레가 1,000번째 골을 기록한 경기장으로도 유명하다. 1950년 4회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브라질과 우루과이) 때 지었다는 이 경기장은 그날 19만 9,800명이 구경을 했다고 기록 돼 있다.

‘마라카나’경기장에서 30여분을 달려 케이블카를 타고 ‘코르코바도’산 정상에 올라가자 ‘거대 예수상’이 나타났다. 가이드 말로는 예수상이 구름에 가려 있는 날이 많은 데 행운이라고 한다. 브라질이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었다는 거대 예수상은 정면에서는

전체를 보기가 어렵다. 밑에 누워서 봐야만 할 정도로 높이가 높고 크다.

자그마치 키가 30m이고 좌우로 벌린 손의 너비만도 28m라고 하니 과히 크기가 짐작이 간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다. 비록 최근에 오른손 중지가 벼락에 맞아 수리를 했었지만 가이드 말에 따르면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한다.

정상에서 내려다 본 수도 ‘리우 데 자네이루’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돋보이는 도시다. 하늘빛을 닮은 바다를 휘감고 있는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리우를 굽이치는 듯한 거리위로 솟아있는 푸르름이 가득한 산들, 수백 개에 이르는 조그마한 열대 섬은 실로 하늘의 축복이라 느껴 질 만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주변은 사방으로 둘러싸인 해변에 마치 그림처럼 펼쳐진 세계 3대 미항 ‘리우 항’을 비롯해 ‘코파카바나’ 해변과 ‘이빠네마’ 해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 웅장한 ‘이과수폭포’

이과수폭포를 보기위해 다시 발길을 리우 데 자네이루 비행장으로 옮겼다.

TV에서나 보아오던 거대 폭포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다. 먼저 브라질쪽 이과수폭포다. 이과수폭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파라과이 세 나라에 걸쳐서 흘러내린다. 주로 관광객이 찾는 곳은 브라질쪽이다.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강물 가운데 폭포 앞까지 관망대를 만들어 놓았다.

브라질에서 보면 폭포 전경을 거의 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거대한 ‘악마의 목구멍(Garganta del Diablo)’을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쪽 폭포를 보기위해서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꼬마열차를 타고 역에서 내려 철다리와 숲길을 도보로 20여분을 걸어야 이른바 악마의 목구멍이 나온다. 악마의 목구멍도 많은 관광객으로 붐빈다.

그날따라 가랑비가 내린데다가 희뿌연 물안개 속에 웅장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생김새가 목구멍처럼 둥근데다가 크기도 제일 클 뿐만 아니라 폭포수 쏟아지는 소리가 웅~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악마의 소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이과수폭포 문제로 사이가 안 좋은 때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놈이 번다’는 말과 같이 “너만 재미를 보느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3분의 2의 폭포가 아르헨티나 쪽에서 떨어지는 데 “어찌 맞은편에 있는 너희 나라에서만 돈을 챙기느냐”는 것이다. “그 돈 좀 내 뇌라” 해서 두 나라 사이가 걸끄러운 시절도 있었다고 한다.

이번 여행에서 아르헨티나에서의 마지막 밤은 잊을 수가 없다. 인생의 반려자인 아내와 붉은 와인 한잔에 진짜 탕고를 감상하며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것이다. [K]

## ‘6·25참전 언론인회’ 정기총회

### 무인기등규탄 ‘대북성명’ 채택

#### 박기병회장 재선임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동우회는 지난 4월 28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기병 회장(사진)을 제3대 회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박 회장은 1950년 8월 학도병으로 입대해 7사단 포병 1대대에서 북한군과 싸운 언론인으로, 춘천 MBC와 강원민방 사장, 한국기자협회 10대 17대 회장을 역임했다.

이날 총회는 임원 선출에 이어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전적지 탐방, 안보 캠페인(중고생 상대 순회강연), 6·25 참전 언론인 명패증정사업 등을 결의하고 대북규탄 성명서(별항 참조)도 발표했다.

〈6·25 참전 언론인회 새 임원진 명단〉  
고 문 김준하(전 강원일보 사장)  
임인홍(전 대한일보 사회부장)  
임학수(전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겸 체육부장)



지갑총(한국참전국협회 회장)  
회 장 박기병(전 강원민방 사장)  
감 사 김관태(박물관 도슨트)  
한영섭(전 KBS 보도실장)  
부회장 지용우(간사 겸임·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황대연(전 매일신문 편집위원)  
이 사 공대식(전 MBC 해설위원)  
김 집(전 KBS 전문위원)  
이규열(전 대한일보 문화부장)  
이순기(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이종기(전 서울신문 부국장)  
최서영(전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 사장)  
한영도(미 CBS서울지국장)  
홍성혁(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 대북성명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여전히 그들의 대남 무력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을 가장한 로켓

발사와 무인기 침투, 핵실험 위협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들은 창립 4주년에 즈음하여 북한의 이 같은 긴장조성과 무력적화 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첫째, 북한 공산정권은 휴전이후 간단없이 천인공노할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해왔다. 우리는 북한 공산정권의 이 같은 호전성과 적화통일 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이 다시는 이런 무력도발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안보의식을 굳건히 다지고 긴밀한 한미 군사동맹을 비롯한 대북억지전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부단히 대남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호전성을 강력 저지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국가관 안보관,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이 절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에서 열린 6·25참전 언론인회 총회.

적으로 요구되며 일부 종북 좌파집단의 북한정권 감싸기를 철저히 경계 봉쇄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굳건히 다지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셋째, 6·25 남침전쟁이 남긴 엄청난 희생이 모두 북한 공산집단의 오판과 만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일부 젊은 세대들의 왜곡 굴절된 안보 불감증과 종북·좌파 세력의 반국가적 행태는 정부당국의 안이한 대처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이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부단히 강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4]

## 언론가 소식

### 신문협회 58회 신문의 날 행사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주관한 제58회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이 지난 4월 7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본회 임원진도 다수 초청된 이날 행사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신문인들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진실의 대변자이자 또 시대 변화의 선구자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신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혁신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힘찬 재도약을 이루어내는 일, 그리고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나 제도를 정상화하는 일, 그리고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신문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 관훈클럽 서울시장후보 초청 토론회

관훈클럽(총무 이용식)은 6·4 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서울시장 후보를 동시 초청, 5월 19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서재필언론문화상 시상

국내 최초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1864~1951) 선생을 기려 제정된 서재필언론문화상(제4회) 시상식이 4월 9일 오후 프레스센터 20층 국



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올해의 서재필언론상은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특별취재팀’이 받았다. 이 상은 서재필기념회(이사장 안병훈)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협회가 후원했다.

#### 고 장기영사주 37주기 추모식



고 장기영 사주 37주기 추모식이 지난 4월 11일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묘소에서 신상석 전 한국일보 사장,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사장, 임종건 전 서울경제신문 부회장, 박무종 코리아타임스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KBS 통일부와 업무협약

KBS와 통일부가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BS와 통일부는 앞으로 통일 관련 3부작 다큐멘터리를 공동기획해 제작하는 등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 SBS 지속가능발전 언론상 수상

SBS보도본부가 연속으로 기획 보도한 ‘착한성장- 대한민국’이 제 8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을 수상했다. ‘착한성장- 대한민국’은 일자리와 중소기업 복지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더 나은 미래사회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YTN 상암동시대 개막

YTN이 남대문시대를 마감하고 상암동 시대를 개막했다. YTN은 4월 7일 YTN 뉴 스퀘어에서 ‘NEW YTN’ 출

범식을 갖고 YTN의 미래비전과 새로운 CI를 선포하고 본격적인 상암동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YTN 신사옥의 이름은 YTN 뉴 스퀘어(NEW SQUARE·새로운 광장이라는 뜻)이다.

#### 바로잡습니다

대한언론 4월호 6면 ‘언론가 소식’란의 한겨레신문사 정명무사장 사진을 이 사진으로 바로잡습니다.



## 사우회 소식

#### 사우회 발전을 위한 원탁회의

경향신문 사우회(회장 김명수)는 5월 2일 사우회 회의실에서 2014년 상반기 사발원(사우회 발전을 위한 원탁회의) 회의를 연다. 사발원은 장명석(전 경향신문 사장 직무대행), 윤상철(전 경향신문 주필) 본회 회우 등 경향사우회 중진들이 참여해 사우회 발전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창간 60주년 기념 오찬모임

한국일보 사우회(회장 제재형·본회 고문)는 지난 3월 31일자로 한우회보 12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16면 컬러판으로 나온 이번 회보는 ‘한국일보 새주인 삼화제분 컨소시엄’ 제하의 머리기사를 시작으로 남재희 본회 회우의 ‘한국일보 백상을 말한다’(4면), 김성우 회우의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중립신문이 있어야 한다’(6면), 한국일보 60년(8·9면 화보), 지상방담10·11면)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려있다. 한국일보 사우회는 또한 6월 9일(월) 11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국일보창간 60주년 기념 오찬모임을 갖는다.

#### 5월 31일 청계산 등산

헤럴드경제 사우회(회장 윤익환·본회 상담역)는 지난 4월 18일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이사진과 기타 임원진을 대폭 개편했다. 본회 문준철 회우는 자문위원으로, 소재필회우와 한양인 회우는 새로 이사로 선임됐다. 한편 헤럴드 사우회는 오는 31일(토) 청계산에서 등산모임을 갖기로 하는 한편 5월 12일 월요일 12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역대사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 사우회보 144호 발행

KBS 사우회(회장 정근춘)는 4월 1일자로 사우회보 144호를 발행했다. ‘여덟번째 친목위·독서토론위원회’(약칭 독서클럽) 출범 소식을 머리기사로 한 이번호에는 4월 22일 봄철 야유회행사, 황인우 아나운서의 ‘삶의 단상’, ‘진실로 인간적인 말하기’(2면), ‘PD에서 부부여행가로 노년이 즐거운 김현(본회회우)회우의 낭만부부’(4면), 정규용씨의 ‘아나운서로 출발, 기자로 마침표를 찍은 나의 이야기’(7면)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눈길을 끈다.

#### KBS

# 회우동정

가나다순

## ‘통일 대박...’ 주제 토론회



박범진(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회우=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인터넷 신문 뉴스바로와 공동으로 ‘통일 대박 어떻게 이룰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자유총연맹 고문 위촉



박기정(함경북도 지사·사진 위)·안병훈(서재필기념회 이사장·사진 아래)회우= 지난 4월 9일 한국자유총연맹 고문으로 위촉.



## 한미클럽 세미나



봉두완(한미클럽 회장)회우= 4월 17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통일 대박론과 한미의 과제’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위촉



송종문(전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상무)회우= 3월 31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류진룡)로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위촉받았다.

## 케이블 UHD 상용화 선포식



양희부(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회우= 지난 4월 10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최초의 ‘케이블 UHD 상용화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초고화질 방송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초고화질(UHD) 방송은 기존 HD방송보다 4배 이상의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 실물을 보는 듯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이승만 포럼’ 개최



인보길(뉴데일리 회장)부회장= 4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정동교회 아펜젤러 홀에서 ‘이승만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하와이에서 온 이덕희 여사(하와이 이민연구소 소장)가 ‘이승만과 학교’라는 주제로 이승

만 대통령이 하와이 체류시절에 펼쳤던 인재육성활동과 건국의 기초작업에 대해 강연했다.

## (사) 대한노인회 고문 재위촉



임덕규(월간 디폴로머시 회장)회우= 4월 8일자로 (사)대한노인회 중앙회 고문으로 재위촉됐다.

## 경향OB산악회 회장



장 옥(전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부장)회우= 지난 3월 초에 있는 경향신문사우회 OB산악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 ‘관훈저널’에 미니회고록



정운종 상임이사= 관훈클럽이 발행한 관훈저널 2014년 봄호에 ‘누가 정년을 말 하는가’ 제하의 미니회고록에 신아일보, 경향신문 논설위원재직시의 애환과 정년퇴임 후의 사회활동 등을 회고하는 글을 기고.

## 대강산업건설 사외이사



천상기(전 내외경제편집국장·경기대 초빙교수)회우= 4대강 감리업체인 대강산업건설주식회사는 지난 3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 인촌기념회에 장학금 1억원



최시중(전 방송통신위원장)회우= 지난 4월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민미술관 내 인촌기념회를 찾아 이용훈이 사장에게 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다. 최시중회우는 “동아일보 재직시절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신문사로 기부금을 보내는 독자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 보태고 싶었다”며 기부금 전달의 소회를 밝혔다.

## ‘첫 방송터’ 기념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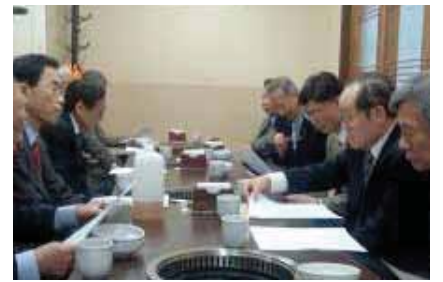
한영섭(한국방송인동우회 회장)원로회우= 4월 26일 오전 11시 우리나라 방송전파가 처음 발사된 것을 기념하는 ‘첫 방송터’(중앙방송국 정동연구소·현 덕수초등학교 교정) 유허비 앞에서 기념행사를 거행.

## 본회 회장단·기조위 회의 열어

김은구 회장은 4월 9일 오후 회장단 회의와 신설된 기획조정위원회를 열고 앞으로의 조직운영문제와 사업추진방안을 협의했다. (사진)

회장단 회의에서는 모든 회의 운영방안 개선, 언론사 현역간부들을 준회원으로 영입하는 등 젊은 회원 늘리기 방안, 퇴역언론인 센서스 실시와 재외동포언론인대회 공동개최, 회원 건강검진사업, 고문변호사들의 회원법률자문사업, 인터넷신문 실버저널(가칭) 창간문제, ‘대한언론’에 대한 설문결과 처리방안 등을 집중 논의,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만들도록 기획조정위원회에 넘겼다.

이어 열린 기획조정위원회는 회장단 회의에서 넘겨진 안건들을 받아 연구해 실천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기존 전문, 발전 법규위원회를 합친 기능으로 출범한 기획조정위원회는 오건환 회우를 위



원장으로 기획 간사에 권영국(전 강원일보 전무)회우, 법제간사에 강병국(변호사)회우가 맡았고 김세경 송경섭 심의표 어경택 정일화 조규석 회우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지난 4월 25일 정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장원’에서는 2차 자문역(의장 최서영) 회의가 열려 본회 발전방안에 관해 많은 의견들이 교환됐다. 이날 모임은 신경식(전 국회의원) 자문역이 후원했다.



신문사진 인간애상 시상식 수상자와 참석자 기념촬영.

## ‘신문사진 인간애상’ 시상식

대한언론인회는 4월 7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한국신문사진동우회(회장 박용운)후원으로 제24회 ‘신문사진 인간애상’ 시상식을 가졌다.

김은구 회장은 이날 ‘신문사진 인간애상’을 시상하면서 “수상자 여러분은 사진기자적 자질을 마음껏 과시한 분으

로서 신문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사표이자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신문사진 인간애상이 신문사진 분야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기자들만이 아니라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값진 기자정신을 일깨워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으로 길이 계승되기를 바란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팔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4년 3월 1일 부터 4월 28일까지)

|                |                |               |               |
|----------------|----------------|---------------|---------------|
| 김정일(14)        | 손세일(14)        | 이영일(14)       | 정성진(14)       |
| 김종(9,10,11,12) | 손진욱(12,13)     | 이환의(12,13)    | 정용기(14)       |
| 박우정(14,15,16)  | 신동34(15,16,17) | 임홍빈(12,13)    | 조규석(14)       |
| 봉두완(11,12,13)  | 이선희(14)        | 정구호(12,13,14) | 최종철(12,13,14) |

## 회우 가족 동정

### 제재형고문차남 제원호씨

### ‘초친수성’ 과학원리 규명

제재형 본회 고문의 차남 제원호씨(서울대 문리대 천문학과 교수)가 와이퍼 없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초친수성’ 과학적 원리를 규명했다고 동아일보(4월 21일자)가 보도했다. 이 원리를 응용하면 물방울이 생기지 않는 선박이나 자동차용 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알림

연휴가 길어 신문 배달이 지연 되었기로 양해바랍니다

##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 회우경조사

### 결혼

- ▲ 박순신 회우= 5월 24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장남결혼
- ▲ 이원장 회우= 4월 19일 오후 6시 공항터미널 3층 서울 컨벤션 홀에서 따님결혼

### 부음

- ▲ 김 집 회우 상배= 4월 2일 강원도 양양에서. 발인 4월 4일



# 대한민국 발전의 금융엔진, 글로벌 KDB

KDB 도전에 마침표는 없습니다

신뢰의 KDB 60년! 이제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새출발합니다  
처음 열정 그대로, 고객과 함께 금융의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겠습니다



START  
FINISH

 KDB산업은행

한국이앤엑스  
KOREA E & EX INC.

KOBA 2014

방송, UHD를 열다!

Join the UHD world..



24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2014.05.20-23  
COEX, SEOUL

[www.kobashow.com](http://www.kobashow.com)

온라인 무료사전등록 : 5월15일 까지 (유료입장시 10,000원)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 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Ufi  
Approved  
Event

